



03 사회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다

06-07 제8회 사진공모전

08 학술 2014 서울디지털포럼 현장을 취재하다

09 문화 소설다이어닝 집중탐구

10-11 심층보도 한성대신문의 현주소와 우리학교 공론의 장을 찾아가다

제30대 총학생회 '행동', 얼마나 행동했나?

총학생회 '행동' 상반기 공약 이행 평가

지난해 겨울방학 전 총학생회장과 전 학부위원장과의 비리, 급작스러운 성적 세척 변경, 그리고 지난 5월 안타까운 사고에 함께하기 위해 축제를 취소하고 나눔 행사 진행.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상반기도 그 끝이 보인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한성대학교와 얼마나 소통했는가? 그리고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으며 얼마나 걸어왔을까? 이에 제30대 총학 '행동'의 현재까지 행사 진행 결과 및 공약 이행 여부, 공약의 추진과정 등에 대해 한성대 신문사가 취재했다.

취재에 앞서 지난 5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통해 한성인이 총학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설문은 크게 공약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총학 '행동'의 소통능력에 대한 평가, 한성인이 총학에게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에는 총 140명이 참여했다.

현재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 한다'고 밝혀

우선 공약 이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이 '불만족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전체의 54%가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7%가 만족(만족,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 28%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복지 관련 공약에서는 불만족이 78%, 시설 확충 관련 공약에서는 75%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사 관련 공약에서는 불만족도가 54%로 다른 공약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 관련 공약의 경우 현재 등록금 인하(2014년 0.5%인하), 학점 세이브제(현 실행중인 학점 이월제)가 제대로 이행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복지공약과 시설 확충 공약에 대한 부분의 경우 총학이 이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소통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약 이행에 대해 체감하는 바가 없기에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공약	이행결과
학사 관련 공약	
수강신청 정비구내제도 (○)	학교 측, 종합관 신축 이후 실행 약속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	제한 완화를 요청,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사지원팀에서 자료 취합 중
학점 세이브제 (○)	2014년 1학기부터 학점이월제 시행 중
등록금 인하 (○)	2014년 0.5% 인하
복지 관련 공약	
스마트 학생증 (x)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할 예정
한성대학교 어플리케이션 (x)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제작 보류
온라인 사물함 신청 (x)	비용-운영적인 면에서 시행 어려움, 대신 신청 기간 연장 등 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
H-membership (△)	인근 대학들과 공동 추진 중
시설 확충 공약	
서틀버스 운영 확대 및 경로 개선 (△)	버스 차량 수 확충은 비용 문제로 어려움, 학생들 편의의 위해 시간대별 차량 운영 수 조정할 예정
Wi-Fi 개선 (○)	방중에 확충 및 개선 예정
프린터 이용 개선 (△)	프린터 사용금 인상 및 미사용금 이월 요구
휴게실 환경 개선 (○)	학생지원팀에 테이블 교체요, 공 휴게실 환경 개선될 예정
공학관 ATM 설치 (x)	기업은행, 현재 설치된 ATM기기의 이용률이 저조해 추가 설치 고려하겠다 밝혀

★★★★☆ 3.25 (10점 만점)
〈학생들이 총학에게 주는 점수〉

공약 이행 체감률 낮아, 총학과의 소통 원해 앞서 살펴본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대부분은 "공약을 이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 '행동'이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소통을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몇몇 학생은 현재 총학생회는 그야말로 '불통'이라

고 지적하며 공약 이행 과정과 중앙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총학 '행동'의 소통 능력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너무 조용하다, 소통이 없다', '학우들과 친근한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약 이행 여부와 상관 없이 과정에 대해서도 학우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총학 '행동',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것 인정해 학생들의 불만과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총학 '행동'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이종혁(정통 4) 총학생회장은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공약에 있어서 결과적인 면을 전해드리고자 했는데, 많은 학우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신 점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총학은 지난 4월 30일 낙산의 메아리에 '공약 관련 사항 및 학생회비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글은 대동제 취소를 알리는 공지 이후 학생들이 학생회비 사용처와 활동에 대한 의문을 남기자 이에 대한 답으로 남긴 것이다. 이러한 총학의 수동적인 소통에 학생들은 많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 총학생회장과 전 학부복지위원장의 불의를 일으킨 바, 학생들은 총학생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타대 학생회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총학 '행동'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채널은 낙산의 메아리가 유일하다. 따라서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고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꾀해 좀 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총학 '행동'의 숙제일 것이다. 이에 유지혜(영문 3)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활발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며 "한성대 신문을 통해 학우분들께 공약 이행 과정과 총학의 행보를 알려드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소통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공약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현재 13개의 전체 공약 중 5개를 이행했고 4개의 공약은 학교 측과 논의 중이다. 어떤 공약을 이행했으며 논의 중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총학 '행동'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면에서 계속된다.

2면에 계속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 성황리에 마쳐



▲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 수상자들의 모습

지난 21일 본교 낙산관 대강당에서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이 주관한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신기하고 매력적인 한국어, 한국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유학생부터 이주여성까지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외국인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는 작년과 달리 한국어어를 가장 잘 하는 팀에게 수여하는 '청산 유수상', 팀워크가 가장 좋은 팀에게 수여하는 '일심동체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보인 팀에게 수여하는 '공감배상'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기준으로는 한국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며 전달할 수 있는지, 주제에 얼마나 적합한지와 관객들의 호응 등이었다.

언어교육원장인 고창수(한국어문학부) 교수는 "이번 대회는 우리가 친 구이며 가족임을 느끼는 잔치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니 즐기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창작 국악 밴드 '비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각자의 개성을 담은 참신하고 재미있는 한국어 뽐내기가 진행되었다.

국어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통해 큰 호응을 얻으며 청산과 트로피, 그리고 한성대 총장상 300만원을 수상했다.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는 '박, 박, 박'과 '안, 았, 았, 았'과 같이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다른 글자에 대한 어려움과 '종로에서 뽀뽀하고 한강에서는 흘긴다'와 '저리도 밝으면 꿈틀 거린다'와 같이 외국인들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운 속담을 콩트로 표현하였다.

몽코리아 팀은 "한국어는 매력적인 언어다. 다른 대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한국문화를 배우고 알고 싶다"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회를 관람한 축미실(부산외대 한국어문학부 4) 학생과 우림림(부산외대 한국어문학부 4) 학생은 "주제가 재미있고 한국어를 다들 잘해서 놀라웠다. '일대일' 팀이 발표한 슬문화 중 '살리고 살리고'에서 참 많은 공감을 느꼈다"고 관람 후기를 전했다.

제3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는 창작 국악 밴드와 무용과의 축하 공연, 두 차례의 응모권 추첨 등을 진행하여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대회였다.

이날 참가팀 중 '몽코리아' 팀은 '한 노유진 수상기자 by32108@hansung.ac.kr

저자와의 만남 성공리에 마쳐

지난 20일 학술정보관 주최로 미래관 DL에서 저자와의 만남이 있었다. 이번 강연은 강신주박사의 27번째 저서 『감정수업』에 대한 것이다. 강신주 박사는 철학과 문화를 동시에 이야기하며 이성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우리시대의 대표 인문학자이다.

강연에 앞서 서은경(학술정보관) 관장은 "학생들이 이 강연을 통해 감정을 어떻게 통찰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배웠으면 한다. 저자와 소통하면서 독자와 저자로서,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교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신주 박사는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대중들과 친근하게 감정으로 소통하며 강단에 올랐다. 강연은 그만의 호탕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감정수업』이란 책의 집필이유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강신주 박사는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통찰'로 화두를 던졌다. 그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감정표현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민주적인 사회는 개인의 감정표현이 자유로운 사회다. 즉, 사회의 전반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느낀 감정에 따라 솔직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 밑에 속해 있으면 감정표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눌러버리고 그러다보면 감정이 죽어버린다"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강 박사는 청중들에게 과제를 위한 형식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대로 글을 써볼 것을 권유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작곡과 같은 예술적 행위도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을 지적하며



▲ 강신주 박사가 저자와의 만남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

진리란 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강연에 참석한 최세민(경영 1) 학생은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리석은 거라 말하지만 이번 수업에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연이 끝난 후 강신주 박사는 학생들의 질의응답에도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었다. 이번 강연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석해 전 객석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강연 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 중 50명을 추첨해 친필사인 담긴 책을 증정하였다.

최혜정 수상기자 hippo9@hansung.ac.kr

참여인원	금액	비고	
학생식당	552명	1,380,000원	교직원식단 제외
현열	120명	0원	
우리들의 가게	500명	3,000,000원	
한성대학원 박사총원우회	5명	1,000,000원	
카네이션	100명	270,000원	
총계		5,650,000원	

이 수익금은 단원과 재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입 경기자 노유진(경영 1) 입태미(시각영상 1) 전희민(경영 1)	최혜정(의생활 1) 한지선(의생활 1)
--	--------------------------

총학생회 '행동'의 공약 이행 여부 일문일답

총학생회 '행동'은 현재 13개의 전체 공약 중 5개를 이행했고 4개의 공약은 학교 측과 논의 중이다. 이에 공약 이행 사항을 한성대 신문사가 물었다. 질문은 지난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Q. 수강신청 장비구니 제도를 기대하고 '행동'에게 한 표를 던졌다.

A: 수강신청 장비구니 제도는 수강신청이 어려운 필수교양 핵심B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학교 측이 답했다.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학점 이월제처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강의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교양 핵심B의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장비구니 제도를 시행해도 그 실효성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교는 종합관 신축과 동시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총학생회 학생들이 학사제도에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수강신청 장비구니 제도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Q. 지난 사물함 신청에서 누에 게 시글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사물함 온라인 신청제도는 어떻게 되었나?

A: 우선 지난번 사물함 개인정보

유출 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누에 게 글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린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사물함 신청은 단순히 신청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전산 컴퓨터 중 한 대는 항상 사물함 신청을 담당해야 하는데, 비공적인 면과 운영적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 중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물함 신청에 있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기한을 문자, 대자보, 누에 게를 통해 최대한 홍보할 것이고, 신청 이후 사용하지 않는 빈사물함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아 사물함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Q. 몇몇 타대는 학생회비를 낸 학생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주는데, 우리학교는 언제쯤 가능하냐?

A: 처음에는 우리학교 근처 식당들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음식가격이 낮은 편이고 자체적인 쿠폰 등이 존재해 멤버십 할인 혹은 적립 등의 혜택 제공이 어려웠다. 그래서 멤버십 혜택의 범위를 돈암동으로 넓히고 인근 학교인 성신여대 총학과 함께 멤버십 혜택을 진행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Q. 셔틀버스 확충은 언제되나?

A: 셔틀버스 확충은 언제되나?



▲ 이종혁(정동 4) 총학생회장(왼쪽)과 유지혜(영어영문 3) 부총학생회장(오른쪽)

A: 현재 우리학교 셔틀버스는 같은 재단인 여중·여고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운행중이다. 그리고 차량 수와 기사님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쓸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차량 수의 확충을 추진하려 했는데,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경로가 짧고 학생들의 탑승시간대가 아침에 몰려있어 오히려 버스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을 파악해 그 시간대에 야간에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등 개선할 것이다.

Q. 와이파이가 안터져서 내 속이 타진다. 언제 확충되나?

A: 와이파이는 이번 여름 방학 중

에 확충·개선 될 예정이다. 교내 와이파이의 경우 새로 설치 시 2주간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에 학기중에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중에 진행하고자 했다. 미리 이를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확충 이후 와이파이가 몇 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를 많은 학우분들이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공지할 것이다.

Q. 이번 세월호 사고로 축제를 취소하고 나눔 행사를 진행했던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 진행에 있어서 취소 공지만 했을 뿐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아쉬웠다.

A: 많은 학우들이 마지막 축제라 기대했는데 이를 취소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당시 우리학교는 타대들에 비해 축제 일정이 가장 빨랐

다. 그리고 축제 기간 이후 종합관 신축과 단체 체전 등으로 축제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초청 가수 섭외까지 완료되고 많은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급하게 나눔행사를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

Q. 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축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A: 취소된 축제 예산은 감사를 거친 후 환불 한 뒤 다음 학기 학생회비와 함께 다음 학기 예산으로 사용된다. 이번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2학기에 특강 진행 등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당시, 등록금 수입 0.5% 해당 금액에 대해 장학금과 학생회 행사 지원금을 확보했었다. 약 3500만원을 축제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축제는 무산되었지만 다른 행사 추진이나 장학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학생회 '행동'은 공약 이행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모든 공약에 대한 일문일답은 한성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성대 기자 hje6757@hansung.ac.kr

멀티미디어공학과 MOU 체결해



지난 5월 28일 멀티미디어공학과는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MOU(상호협력 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인·지적 자원, 시설 및 정보의 교류에 협력함으로써 유익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했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멀티미디어공학과는 협약 내용에 따라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 및 경영관련 정보의 교환과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학생 실습 기회의 제공과 취업 관련 정보의 교환, 학교교육 참여와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의 수행, 기타 상호협력 전반에 관한 상호협력력을 하게 된다.

한성대 기자 hje6757@hansung.ac.kr

간추린소식

대학가에 부는 홍역주의보, 본교 역시 홍역 의심환자 발생해

지난 5월 홍역이 서울 북부 대학가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국민대, 광운대 등의 대학에서 홍역 의심환자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늘어났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홍역이 유행하자 우리학교에서도 홍역예방 매뉴얼을 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했으나, 지난 21일 우리학교 경영학과 학생 한 명이 홍역 의심환자로 밝혀져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

홍역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발진(홍반성 반점 상 구진), 기침, 콧물, 결막염 및 질병 특유의 점막 발진이 나타난다. 또한 홍역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90% 이상 발병한다.

건강관리실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SNS를 통해 홍역의심환자 발생과 예방지침 안내를 공고했다. 권호관 주임은 "학생들이 개인위생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홍역이 의심될 경우 즉시 건강관리실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염병 홍역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직과정 예비교사 수업실연 대회 열려

지난 5월 26일 미래관 ELC에서 '교직과정 예비교사 수업실연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수업실연 능력을 배양해서 예비교사들의 우수한 교수-학습활동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재홍(교직과) 교수는 "최근 임용고사 3차 심사에서 수업실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수업실연을 하는 학생들은 교생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선배들이다. 2, 3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갖고 닦은 모습을 보면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교생실습을 마친 6명의 4학년 학생들로 1인당 1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수업방식을 살펴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심사위원은 신재홍 전임교수와 한성여중 교장으로 '학습목표 제시', '실명의 정확성', '수업자료', '교사의 언어 특성', '수업의 전개 속도', '자신감' 등 총 10가지 심사 기준으로 수업실연을 평가한다.

심사결과에 영어수업을 한 민재현(영문 4)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국어수업을 한 성유진(한국어문 4), 박서령(한국어문 4) 학생이 우수상, 그리고 박미령(한국어문 4), 장혜진(경영 4), 전주영(사각영상 4) 학생이 장려상을 받았다.

2014-1학기 강의만족도 및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5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014-1학기 강의만족도 및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강의만족도 조사는 2002년부터, 교육만족도 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강의만족도와 교육만족도 조사 평가 내용은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강의만족도 및 교육만족도 조사는 종합정보시스템에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지 접속해 평가할 수 있다. 두 조사는 수강신청을 한 모든 과목에 해당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실시된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조사 완료 과목에 대한 성적조회를 미리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조사완료과목 성적조회 기간은 6월 25일부터이며, 미완료과목 성적조회 기간은 7월 2일부터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02-760-4219)으로 연락하면 된다.

각 공과대학 졸업전시회 개최 및 예정돼

1학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과대학은 졸업전시회를 진행·준비 중이다.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미래관 지하 1층에서 졸업전시회를 진행했다. 30일에는 정보통신공학과가 연구동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졸업전시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 3일에는 멀티미디어공학과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산디지털단지 내 G밸리 기업사민청 6층에서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컴퓨터공학과와 정보시스템공학과는 오는 5월 오후 1시에 각각 미래관 지하 1층과 공학관 A동 B105호에서 졸업전시회를 진행한다. 산업경영공학과는 여타 학과와 달리 졸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한성인을 위한 체력단련실, 당신은 이용하고 계시나요?

건강과 노후의 계절인 여름, 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 지금 당신은 본교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가? 본교는 낙산관 4층에 학생과 교수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 중이다. 그렇다면 체력단련실을 학생들은 이용하고 있을까? 또 이용하는 학생들의 체력단련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한성대 신문사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는지와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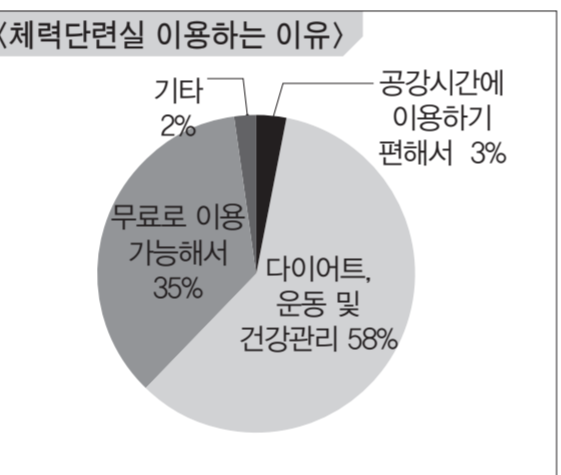
설문조사에는 총 121명(남자 77명, 여자 44명)이 응했다. 그 중 60명의 학생들이 체력 단련실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61명의 학생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다이어트, 운동 및 건강관리', '무료로 이용가능해서'가 93%를 차지했다 이어 만족했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운동기구가 다양하다'가 61%를 차지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본교는 체력단련실 이용

료를 받는 홍익대, 고려대 등 타대와는 다르게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시간이 부족하다'가 32%를 차지했다.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체력단련실의 존재를 몰랐다'가 35%를 차지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홍보물은 입학식 안내책자를 제외하고 거의 없어 상당수가 체력단련실의 존재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홍보부족에 대해 신영석(사설지원팀) 과장은 "낙산의 메아리에 글을 올리고 안내문을 붙이는 등 학생들이 체력단련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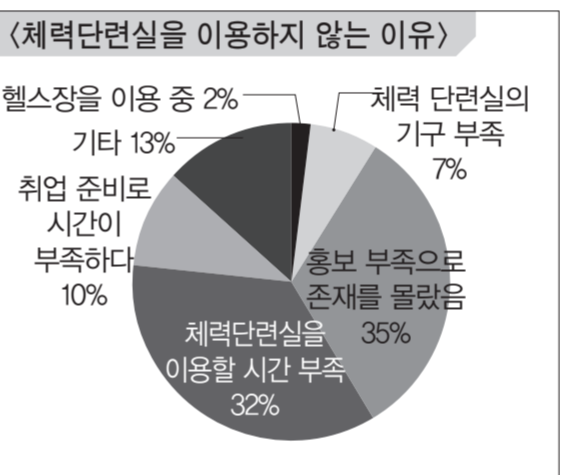
체력단련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위실과 탈의실 크기 및 환경개선'이 43%, '다양한 운동기구 설치', '트레이너 도입'이 각각 18%, 20%를 차지 했다.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인 조형우(경영 1) 학생은 "사위용품과 시설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이유

또한 체력단련실에는 운동지식을 가진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기구사용을 위한 운동지식을 갖춘 관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규칙 준수를 감시할 관리원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수건과 운동복 등을 대여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신영석 과장은 "체력단련실은 사설기관이 아니라서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나 규칙준수를 위한 조교와 운동지식을 갖춘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건대여 의견에는 관리가 힘들어 대여를 해주지 어려우



▲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니 수건이나 운동복은 본인이 지참해 달라"며 "사위실 사용 후 수건이나 옷 등을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고려해보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운동기구가 다양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교의 체력단련실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거나 홍보부족으로 몰랐던 학생들이 73%를 차지할 정도로 학교의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 또 이용자의 소리들

전희민 수습기자 aegis16@hansung.ac.kr



▲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노광현(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교환·방문학생들의 지도교수 역할로 지난 1월 25일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Northern Kentucky University를 방문했다. 또한 지난 3월 22일에는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University of Evansville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성대 기자 hje6757@hansung.ac.kr

제9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열려

지난 5월 22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제9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작년에 비해 인문대학 학생들의 수가 반가량 줄어들고, 예술대학 학생들의 수가 약 8배 증가했다. 대회에 참여한 학생은 인문대학 50명, 사회과학대학 73명, 예술대학 82명, 공과대학 15명으로 총 218명이다.

정원재(사고와 표현) 조교는 "9회째인 글쓰기 대회는 매년 참가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대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교수님들의 홍보 역시 효과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대회는 개최사를 시작으로 출사와 격려사가 끝나고 100분간 진행되었다. 글쓰기 대회는 주제를 선택하여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와 한국사회의 소통 문제' 두 가지 주제가 출제 되었다.

글쓰기를 마치고 나오던 정은영(시각영상 1) 학생은 "이번 대회처럼 본



▲ 한성인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격적으로 글쓰기를 해본 경험이 적은데, 출제된 문제가 난감해서 많이 어려웠다. 글을 다 쓰고 나오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심사는 1차·2차 예심과 3차 본심을 통해 진행된다. 대회 수상자는 총 13명이다. 예심에서는 6명의 사고와 표현 연구원이 수상자의 4배수인 52개의 답안지를 선별한다. 본심은 선별된

52개의 답안지를 이은희(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장과 사고와 표현 교수 3명, 그리고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공과대학·교양과 교수들로 총 9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심사결과는 6월 10일 한성공지 또는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훈 기자 1236067@hansung.ac.kr

사회적 기업,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Bear Makes The World Better, 베어베터



▲ 베어베터 사무실 내부는 편안하고 이룩한 분위기의 카페처럼 꾸며져 있다.



▲ 발달 장애인 직원들이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Bear Makes The World Better'의 약자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려는 공 청년들, 발달장애청년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와 가족, 이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드는 의미이다.

베어베터를 알기 전에 우선 '발달장애'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묶어서 하는 말이다. IQ가 70이하인 지적장애로 등록된 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용구를 생각해 보면 된다. 자폐성장애는 지능상 문제가 없지만 감성능력이 IQ가 부족한 장애를 뜻한다. 자폐성장애에는 영화 <마리톤>의 조원이가 있다.

베어베터의 사업은 크게 인쇄제본업, 커피로스팅 판매업, 제과제빵업 세 가지로 나뉜다. 발달장애인들이 그 사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와 기업고객이 생산된 물품을 사 줄 것인지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다.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직원들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 작업과정을 보다 세분화했다. 우선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일을 진행한 후 발달장애인들이 나머지 과정을 쪼갬 단순화된 일들을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일을 익히는데 비장애인들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과제빵 사업의 경우 전문가들이 먼저 쿠키 반죽을 만든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반죽을 저울질 하여 일정 양 덜어내기, 오븐에 굽기, 스티커

붙이기, 포장, 배송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한가지 독특한 점은 베어베터는 배송시 택배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발달장애인들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면서 스스로의 자립성과 자존감을 키우고, 외부 사람들과 직접 부딪침으로써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스스로 바꾸어간다.

베어베터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하는데 카페와 같은 세련된 분위기의 회사 환경제공, 브랜드 유니폼 제공, 장애인의 날에 개최하는 아우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는 "베어베터의 유니폼은 단순히 브랜드의 가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표식이다"고 말했다.

베어베터에는 '혼자 출퇴근 가능'이라는 입사조건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발달장애는 같은 급수 속에서도 장애정도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폐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발달장애인에게 '혼자 출퇴근 가능'이란 조건은 자기 스스로 어느정도 보살필 수 있는 기능, 즉 최소한의 업무수행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근로'라고 한다. 장애인들에게도 이 말은 예외가 아니다. 베어베터는 장애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베어베터의 아름다운 발전을 기대해 본다.

최혜정 수습기자 hipo96@hansung.ac.kr

사람을 중심에 두다, 그루(g:ru)

요즘 패션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패스트 패션이 트렌드이다. 그러나 유행에 뒤처지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유펜어트리어드 코리아'가 운영하는 '그루'이다.

그루는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공정무역이란 소외된 생산자에게는 노동의 대가가 공평하게 지불되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인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무역방식이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만남을 주선한다.

그루의 주요 생산자는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등 아시아의 빈곤국가 성립이다. 그루는 생산자들의 전통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접목된 친환경 의류와 패션소품, 유기농 면 제품, 리빙 용품 등 약 600여 점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우선 생산자 별로 봉제 기술 수

준, 소화가능한 수량, 특징적인 기술 등을 고려한 디자인을 기획해 생산자들에게 보낸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샘플이 최종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생산하게 되는데 생산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고 한번에 50개에서 100개를 생산한다.

박영주 홍보마케팅 팀장은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기에 불량품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1년 선급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품에 대한 비용도 생산자에게 지불한다"고 말했다. 1년 선급제도는 재료를 구할 돈이 없는 생산자에 한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루는 공정한 거래, 전통기술과 문화적 다양성 보전, 안전한 작업 환경과 미래, 환경과 건강 보호, 윤리적 소비 이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생산자들에게 공평

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생산자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운다. 또한 수공예 기술, 경영, 회계 등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무역이라는 말이 우리는 많은 의미를 두지만 정작 생산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아직도 빈곤국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여러 기업에 반대하여 공정무역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공정무역회사의 수는 극히 드물다. 그루와 같이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빈곤 국가의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노유진 수습기자 ly32108@hansung.ac.kr



▲ 한국동에 위치한 그루 매장 내부이다.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 직업, 경제와 통(通)하다

자신만의 업(業)을 극대화 하자

최근 취업시장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10%를 육박하고 있으며, 2013년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구직자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뽑을 인재를 찾지 못한다. 낮은 고용률에, 고스펙의 취업준비생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뽑을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현실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기업의 정의부터 이야기해보자. 기업은 경제·경영학에서는 생산의 주체로만 정의하지만 사실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기업은 한자로 '기업'이다. 발음은 '기업'이지만 '기업'이라는 뜻의 '企(企)'와 '업(業)'을 의미하는 '업(業)'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특히 기(企)는 '사람(人)'과 '머물(止)'로 이루어져 있다. 즉, 기업(企業)이란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人)들이 머무는(止) 곳이다. 한편 업(業)이란 무엇일까?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업이 무엇인가?'에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의 질문에 '소매업'이라고 답했다가 고개를 저으며 '상품의 이동'이라고 정정했던 드러커의 답변이 성공전략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월마트의 사례는

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이다. 즉 업이란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기업이란 '인재들이 모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 된 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점이다.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탓이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화는 곧 생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가운데 지난 40년간 생존한 기업이 10개 내외라는 점은 생존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기풍이다.

이들 서울대 윤석철 교수는 '기업의 생존부등식'이라고 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격>생산원가」라는 생산자의 입장과 「상품소비로 인한 만족감>가격」이라는 소비자의 입장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부등식에서의 차이가 생산자의 이익이 되고, 두 번째 부등식에서의 차이가 소비자의 이익이 된다.

즉,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관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의 질문에 '소매업'이라고 답했다가 고개를 저으며 '상품의 이동'이라고 정정했던 드러커의 답변이 성공전략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월마트의 사례는

반대로 수요자가 기업이고, 우리는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취업시장에서의 생존부등식은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이것이 유지될 때 기업과의 공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각자만의 '업'을 극대화시킬 때 가능하다. 장수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장점의 극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취업(노동)시장에서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최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고민이다. 차별화를 위해 어떤 점을 극대화시켜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장단점의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만족감>생산원가」라는 생존방정식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차별화를 위해 각자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바로 단점의 보완이 아니라 장점의 극대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점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분명 비용 대비 효과가 작은 일이다. 단점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장점을 키우는 일이 업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기억하자. 스펙은 단지 포장지에 불과하다. 겉멋이 아닌 여러면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길 바란다. 견승을 본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 사회를 보다

사고공화국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현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안전'과 곧 있을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 나날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니 안전은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이슈다. 올 초 있었던 경우 마우나 리조트 사고를 기억하는가.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비웃는 듯 2호선 열차 충돌 사고, 고양 터미널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기업의 무차별적인 이윤추구, 정부의 무능함, 안전불감증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근 50년간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지 알 수가 없다. 1950년 6.25전쟁이 끝나자 우리나라에게 남겨진 것은 잿더미 뿐이었다. 6.25전쟁 당시 맥아더 UN 총사령관이 우리나라를 둘러보며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려

면 최소 백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 하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1977년 수출규모 100억 불을 달성했다. 일본이 16년 만에 이루어 내고, 서독이 11년만에 이루어낸 100억 불 달성을 한국은 7년 만에 이루어 냈다. 너무나 빠른 속도의 성장으로 전세계가 '믿기 힘든 일'이라며 놀라워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기적 걱정 따윈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뿐인가. 세계경제순위가 10위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속 성장에 '물집만능주의' 패배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 발전만을 목표로 실재 없이 달려 온 탓에 '돌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위험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항상 무시되어왔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라는 말에 힘입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려

면 최소 백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 하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1977년 수출규모 100억 불을 달성했다. 일본이 16년 만에 이루어 내고, 서독이 11년만에 이루어낸 100억 불 달성을 한국은 7년 만에 이루어 냈다. 너무나 빠른 속도의 성장으로 전세계가 '믿기 힘든 일'이라며 놀라워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기적 걱정 따윈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뿐인가. 세계경제순위가 10위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속 성장에 '물집만능주의' 패배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 발전만을 목표로 실재 없이 달려 온 탓에 '돌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위험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항상 무시되어왔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라는 말에 힘입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려

면 최소 백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을 정도다.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 하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1977년 수출규모 100억 불을 달성했다. 일본이 16년 만에 이루어 내고, 서독이 11년만에 이루어낸 100억 불 달성을 한국은 7년 만에 이루어 냈다. 너무나 빠른 속도의 성장으로 전세계가 '믿기 힘든 일'이라며 놀라워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기적 걱정 따윈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뿐인가. 세계경제순위가 10위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속 성장에 '물집만능주의' 패배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경제 발전만을 목표로 실재 없이 달려 온 탓에 '돌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다. 위험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항상 무시되어왔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라는 말에 힘입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한성대 신문사 제39기 수습기자모집

언론의 중심 한성대 신문사입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학내 소식과 사건·사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사회이슈·문화비평·학술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희 한성대 신문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발로 뛰는 열정, 다음은 당신입니다.

- ※ 선발대상 : 14학년 재학생
- ※ 모집인원 및 분야 : 00명,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 ※ 신청방법 : 신문사에서 지원서 작성 후 면접
- ※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동안
- ※ 활동혜택 및 지원 : 매월 기자 활동비 지급 및 원고료 지급, 임기완료 후 기자 인증서 발급, 명함 지급
- ※ 문의 : 우촌관 옆, 기업은행 맞은편 제1학생별관 2층 Tel.02-760-4186 한재원 편집국장 010-5473-2642 / 1236047@hansung.ac.kr

- 신동석 (행정 12)
- 취재부 부장

- 오그림 (무역 12)
- 문화부 부장

- 현정은 (무역 12)
- 취재부 기자

- 김근영 (행정 12)
- 사회부 부장

- 한재원 (행정 12)
- 편집국장

해외대학 교환·방문학생과 지도교수



교단에서

노광현 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최근 본교의 해외대학간 학생교류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으로 해외 대학에서 1년 간 공부하는 교환/방문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내년부터는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와의 복수학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본교 학생들의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해외대학 교환/방문학생이 증가하고 시점에서 본교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해외 현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교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교수가 교환/방문학생의 현지 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3년 2학기부터 1년간 미국 인디애나주 Purdue University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본인이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NKU)와 University of Evansville(UE)에서 공부하는 교환/방문학생들의 첫 번째 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인의 연구년 시작과 함께 두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메일, 전화 연락을 하면서 지도교수 업무가 시작되었다. 본교에서 만나본 적도 없는 타국 학생들의 지도교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한 통의 이메일에도 반갑게 답장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교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방문/교환학생들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올해 1월말과 3월말에 NKU와 UE를 각각 방문했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같은 한성인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오랜만에 푸짐한 한식을 먹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지도교수가 아닌 부모의 심정이 느껴졌다.

미국 도착 후 제대로 먹는 한식이라며 밤 한통 남기지 않는 한 남학생의 모습을 보며 비록 3시간의 만남을 위해 왕복 8시간을 운전했지만 방문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교류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제안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개선할 점이 많음을 인지하고 관련 부서에 전달했으며 향후 단계적으

로 반영될 것이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지는 순간을 아쉬워하는 학생들과 귀국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귀국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고, 전공이 다른 새로운 제자들이 생긴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대학구조조정 이슈로 학생 교육과 지도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전공 지식 전달이 대학의 최우선 목표이겠지만 동시에 구성원들 간의 유대 강화, 특히 학생과 교수간 끈끈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교환/방문학생들과의 인연을 통해 학생 지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어 본교 교수님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에서 공부하느라 수고하는 학생들에게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서 준비한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받고 해맑게 웃던 학생들이 떠오른다.

· 사 설 ·

우리대학은 안전(安全)한가?

2014년 4월 16일. 결코 잊혀지지 않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믿기 어려운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온 국민을 깊은 슬픔과 분노에 젖게 만들었던 사고이지만 이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고 국민 개개인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대학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대학도 부주의로 인해 몇 번의 화재가 있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의 화재 진화 훈련도 있었고 대학 곳곳에 소화기도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 아마 타 대학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안전대책과 안전장치를 마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단 화재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신속하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대비하는 모습도 대학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줄만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도의 안전조치에 대해 만족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작은 실천들을 소홀히 한다면 항상 사고의 가능성은 있기 마련이다.

안전사고는 화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화재의 경우 훈련도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있다. 하지만 그 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며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안전대책이나 안전 장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점검이 필요하다. 소화기를 비롯한 안전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노후화 되지는 않았는지, 안전사고 등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및 피난 안내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의 훈련의 방법과 횟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우리대학 건강관리실 앞에는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인데 대학 구성원 대다수는 이 장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것이다. 모의 훈련이 대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상시제공하고 구조 관련 훈련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교외활동에 대한 안전대책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들이 대부분 교외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외 및 국외 체류 활동이 크게 활성화 된 것을 염두에 둔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대학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안전 대책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자부하여도 사고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되어있다. 하지만 그 외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며 우리 대학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있어야 할

잠겨있는 소통의 열쇠는 어디에

소통, 아니 정확히는 '유효한 소통'은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며 '소통 잘하는 법', '소통의 중요성' 등을 논한 책들과 강의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통'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인 것으로 보아 아직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통(疏通)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성은 얼마나 원활하고 오해가 없는 소통을 하고 있을까? 본교 역시 언제나 소통을 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통이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총학생회와 한성대 신문, 이 네 주체에게 소통이라는 자물쇠가 잠긴 채 놓여 있는 것이다.

지난 1학기가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다. 학교는 소리 소문 없이 성적 세칙을 변경해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총학은 지난 공약 이행 평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불통(不 通)'이라고 지탄 받았다. 한성대 신문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까? 잠겨있는 학교와 총학생회 그리고 열려있는지조차 모를 신문사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한 잠겨있는 소통은 도통 열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모두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 그 직선은 서로의 교차점이 어디인지 모른 채 각자의 길로 뻗어나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평행선이 아닌 이상 언젠가 접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 접점이 바로 소통의 지점이 아닐까? 학생들의 무관심은 나머지 세 주체로 하여금 소통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한다. 반대로 학생들의 관심은 소통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학생들이 관심이 바로 소통의 시작이자,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소통을 원한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소통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원히 불통일 수밖에 없다. 다가올 다음 학기, 학교와 총학, 그리고 신문사가 내미는 손을 덥시 잡아주기 를 바란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언론



기자수첩

현정은 기자
(무역 3)

국민의 방송, KBS. 요즘 이 말이 나는 실감 이 나지 않는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부의 방송'이 맞는 말 같다. 지난 달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KBS 기자협회 총회에 참석해 보도국장 재임 기간 내내 보도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도 해경에 대한 비판보도를 자체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언론이 정부의 앵무새로 전락해버렸나. 2005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언론 자유 순위 34위를 기록해 '언론자유국'이라 불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 순위는 점 점 하락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된 후 계속 '언론자유국' 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언론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68

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이나 하락했다.

현재 KBS 기자협회가 지난 5월 19일 오후 1시부터 뉴스제작 거부체제에 들어갔다. 앞서 언급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 때문에 김현영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이는 세월호 보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세월호 보도를 반성하고 언론 독립성을 요구하며 현직 언론인 5,623 명이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다르게 세월호 보도로 주요언론 대신 집중을 받았던 언론들이 있다. 종편이라며 외면을 받던 JTBC는 세월호 보도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뉴스타파 등의 대안언론들이 현재 비판받고 있는 뉴스체제의 대안으로 제시 되기도 했다. 외신들도 말 빠르게 세월호 참사를 전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과 현지 상황을 더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국내언론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 사람들은 심지어 뉴스 보다는 인터넷 루머를 더 믿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들이 루머를 더 신뢰하고 JTBC의 모습을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론과 정경이 유착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언론은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또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일종의 기자의 사명감이다. 독자와 시청자들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Ctrl+C, Ctrl+V가 된 기사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퇴보된 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대학신문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본다.

우리들의 행복했던 작은 가게



낙산에 올라

배성민 학생
(경영 2)

'두근두근 거리는 날'. 이번 우가게의 모터브였으며, 우가게 3일간 참가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말이다.

사실 나는 동아리나 우가게 같은 교내 활동은 물론 MT도 기본 적이 없는 출퇴근형 대학생 이었고, 그랬던 내가 3일간 전교생에게 딸기 쪼치를 팔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3일간의 행사를 위해 우리 '베리퀸 섹'팀은 2주의 시간동안 컨셉과 재료 선정 및 인테리어와 세부 전술을 준비했다.

경영학도 남학생 7명이 모인 준비는 그렇게 문제없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줄만 알았다. 부폰 기대를 안고 맞이한 행사 첫날, 예상치 못한 큰 변수를 맞이하는데 바로 삼겹살 꼬치 팀이 바로 옆 부스에 자리한 것이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일반 학우들은 끼니 대신 먹을 수 있는 상품을 선호했고, 거기에 남새까지 강렬한 삼겹살은 주변 참가팀까지 군침 돌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팀의 매출은 예상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우리의 순수익은 뒤떨어 회비를 내면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팀원들은 뒤떨어에서 가장 신나게 먹고 마셨으며, 아직까지도 행사 때 있었던 일을 회자하면서 깔깔대고 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어야하고 우가게를 준비했다면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얼굴 보지 말자며 헤어졌을 것이다. 정말 우가게를 하며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것일까? 교내 소식이나 행사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나는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고, 친구들은 벌써 다음

행사를 찾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학우들에게 딸기를 팔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군 전역 이후 굳어있던 마음의 떨림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아직도 내가 만든 마지막 컵딸기를 판 후 친구들과 단체사진을 찍을 당시를 생각하면 뿌듯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길 바란다. 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즐거움 노동. 그리고 느껴 보길 바란다.

준비기간 동안 5시간 이상 자질 못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이유로 힘이 나는 청춘을, 지인들은 묻는다. 돈도 못 벌었는데 다음에 또 참가할 거냐고. 그럼 나는 대답한다. "같이해요!"

한성투데이 기자라는 것



한성인끼

이진솔
영자신문사
편집국장
(경영 3)

여름이 선뜻 다가왔다. 영원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인기 종료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코끝이 찡하다. 한성투데이(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와 함께한지 벌써 4학기 째. 이번 신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군분투했던 우리 25기 기자들은 퇴임을 하게 된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기사마감을 위해 수없이 썬던 밤, 아슬아슬 위태롭게 만들어졌던 첫 신문, 처음으로 동기들과 영자신문사 운영에 관해 대판 싸운 일, MT로 늘어난 바닷가에서의 즐거웠던 기억 등 아직도 모든 일들이 생생하기만 하다.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던 2년 여 간의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 하나를 꼽아보자면, 2014년 3월에 진행했던 우리 대학 프레스센터의 홍보활동이 아닐까 싶다. 우리 프레스센터(영자신문사, 신문사, 방송국)는 처음으로 힘을 합쳐 부스를 설치해 솜사탕과 신문을 함께 나누어주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조차도 반신반의하며 했던 것 같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하지만 3

일 동안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대학교 4년을 다녔어도 영자신문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과 이제 더 이상은 우리만 만족하는 신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대학 언론사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말로만 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여부가 임 밖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문학 관련 학과를 아무렇지 않게 통폐합해버리는 대학의 현실 속에서, 학보사들이 안전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특히 영자신문사는 이러한 대학의 구조조정 1순 위다.

우리 학보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다. 학생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역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가 신문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좀 더 멀리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솜사탕을 받기 위해 저 멀리까지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모든 학우들이 영자신문사의 존재를 알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 신문을 자발적으로 가져다보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영자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는 기자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쓴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영자신문사는 학우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더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자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신문사, 방송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우들의 관심은 우리 기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당신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더 뜨겁게 밤을 지새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은 신문, 더 나은 학교, 나아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한 번쯤 학교에 있는 파란색 가관대를 눈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뜨거워질 한성대학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꿈의 대화

디자인 전공에서 학예연구사를 꿈꾸다

국립 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구민경 멘토를 만나다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 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 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를 기획 혹은 개최하고, 작품 혹은 유물을 구입,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한 방법과 일이 다양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인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본교 출신의 동문이자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구민경(미디 02) 멘토를 만났다.

멘티: 저는 미술관 도슨트를 보면서 학예연구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학예연구사를 꿈꾸게 되셨나요?



▲ 멘토인 구민경 학예연구사의 모습

필수 과목이 미술사였는데, 미술사 공부 재미있어서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디자인과라 전시회를 많이 관람했는데, 그때 설명해주는 분들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 역시 그 분이 도슨트인지 학예연구사인지 잘 몰랐죠. 호암미술관에서 정말 예쁜 여성분이 설명해주셨는데, 그때 멋있었다.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멘티: 그럼 학교를 졸업 후에 바로 학예연구사로 일하신건가요?

멘토: 아뇨. 졸업하고 나서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학예연구사의 꿈을 접지 않았기에 주말에는 박물관·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경희대학교 박물관·미술관 교육을 전공해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박물관 인턴생활을 시작했죠. 인턴부터 다시 시작하긴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학예연구사라는 일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했기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멘티: 멘토님께서 석사 과정에서는 미술이 아닌 교육 분야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멘토: 미술사는 너무나 좋아했지만, 미술만으로는 학예연구사로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 쪽은 유행과도 많고, 경쟁률도 치열하죠. 그러던 차에 자원봉사를 했던 기관의 미술사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미술 분야가 아닌 교육 분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은 다양한 경로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멘토님께서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멘토: 국립 민속박물관에는 여러 과가 있는데, 저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업무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은 도슨트 분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멘티: 학예연구사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멘토: 각 박물관과 미술관은 성격이 다릅니다. 각 기관의 소장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박물관에는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교육학, 박물관학, 민속

학 전공자들이 많이 있고 미술관은 미술사학, 미학, 예술학, 미술교육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전문 분야를 찾아서 연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즐기겠지만 학예연구사는 특히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합니다.

멘티: 큐레이터가 유망 직업으로 꼽히는 직업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멘토: 그렇다면 유망 직업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어야만 유망 직업에 속하지는 않은 거예요. 게다가 학예연구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는 직업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예연구사는 '좋아서 하는 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 유지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계속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예연구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학예연구사를 모집하는 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예인력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술관·박물관과 같은 전시 기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사에 대한 수요가 더 늘고 그 처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멘티: 요즘 학예연구사라는 진로를 고민하면서 유학을 염두 해두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는 대부분이 유학파라는데, 만약 유학을 갔다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요?

멘토: 일단, 저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유학을 통해 외국어 공부도 하고 학예연구사 관련한 공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외국의 학예연구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직접 외국에서 일도 해보고 싶어요. 물론 학예연구사 중에 유학을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이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멘티: 마지막으로 저처럼 학예연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멘토: 저는 유학보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정말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은 용기를 갖고 도전해보세요. 저는 가야금 소리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어요. 아이들의 그림이 궁금

해서 컬러리스트와 미술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공부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인연'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속한 사회는 워낙 좁다보니까 예전에 일했던 곳, 자원 봉사 했던 곳의 분들과 계속 연결이 되고 그분들과의 인연이 많은 도움이 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늘 준비된 자세로 어디에서든, 자원봉사자나 인턴으로 먼저 인연을 맺고 열심히 즐기면서 일했으면 합니다.

이번 꿈의 대화 인터뷰는 국립민속박물관 근처의 유명 칼국수 집에서 진행되었다. 칼국수를 먹으며 멘토와 멘티는 소탈한 꿈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멘토와 멘티는 본교 디자인 학과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꿈의 대화 인터뷰를 마친 후 멘티 김미영(시각영상 3) 학생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들어 좋았다. 앞으로의 목표가 더욱 명확해진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꿈의 대화 멘토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의 조언까지도 아끼지 않은 구민경(미디 02) 학예연구사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을 통한 창의성 발전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 관심을 놓지 않았던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연구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가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도슨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말한다.



▲ 멘티인 김미영(시각영상 3) 학생의 모습

교직원들 만나다

입학관리팀 안상욱 팀장을 만나다

예비 한성인이
만나는
첫 번째 부서,
입학관리팀



▲ 입학관리팀 안상욱 팀장의 모습

기말고사와 함께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방학이 다가오면서 더욱 바빠지는 부서가 있다. 바로 입학홍보처 산하의 입학관리팀이다. 입학관리팀은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시 전형 준비하는 등 예비 한성인을 선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안상욱(입학관리팀) 팀장을 만나보았다. 안상욱 팀장은 1995년도에 입사해 올해로 19년째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자계산소(지금의 정보화팀) 9년, 총무인사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고 현재는 입학관리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입학관리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신·편입학 전형 정책 개발 및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이다. 즉 그는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신

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입학관리팀에 대해 안상욱 팀장은 "입학관리팀은 신입생과 편입생을 선발하는 곳이다. 때문에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수험생, 수험생의 학부모의 민원, 즉 외부 민원을 수리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이 아닌 수험생, 수험생의 학부모,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상대하는 부서이다"고 말했다. 본교는 수시입학에 지원하는 인원보다 정시입학에 지원하는 인원이 더 많지만,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로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입학홍보처에서는 3, 4월에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공문을 보내고, 입시설

명회를 신청한 고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입학홍보처의 모든 직원이 고교방문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상욱 팀장은 "교내 모든 부서가 업무를 보면서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입학관리팀의 경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외부 민원이 주를 이룬다. 외부 민원 성격상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내부 민원이 라면 양해와 협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수험생들의 문제는 그러기 힘들다"며 "정해진 기간(합격자 발표일 또는 고사일) 안에 모든 일을 문제 없이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수시 접수부터 정시 추가 모집이 끝나는 2월 말까지 약 6개월간은 계속 야근을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이 많은 만큼 보람도 크다. 입학관리팀은 한성인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거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보면 '뿌듯하다'며 '입시설명회에서 입시 상담을 받은 학생이 본교에 입학해 인사하러 왔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그는 팀내에 소소한 행복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라고 말했다. 오늘날 그는 소소한 행복과 보람을 찾아 입학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새로운 입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낙산 tōōn



대학생활의 달인

글: 그림 정다혜(시각영상 4)

The Hansung University News

8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작



현대인의 삶-Everyday Americano

홍수희(시각영상 3)

수상소감

바쁜 현대인의 삶, 그속에서



홍수희(시각영상 3)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홍수희입니다. 우선 제8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제 작품이 선정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작업한 사진들을 이번 공모전에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품 한 세 점의 사진은 '현대인의 삶'이라는 공통적인 큰 주제를 잡아서 좋아하는 작가의 사진을 모아 주하여 작업 한 작품들입니다. 현대인들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지, 그들의 공통적인 삶의 습성은 무엇인지 '현대인의 삶'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 '아메리카노', '디저트',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최종 부주제로 선정하여 세 장의 사진 작업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어 보정하는 작업은 원래 좋아하는 작업이라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저 자신의 몸짓 연기를 셀프로 촬영 하는 작업은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있어 며칠씩 스튜디오를 빌려가며 작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아메리카노' 작품에서는 바쁜 일상 속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고, 두 번째 '디저트'에서는 맛있는 케이크를 비싸더라도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는 힘들고 지치는 도시 속 삶에서 아무거나 붙잡고 떠나고 싶어 하는 지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작품 이름을 'Everyday Americano', 'Everyday Dessert', 'Wanna go Everywhere'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세 점의 사진을 용기내어 출품 하였는데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개인사진 작업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작

수상소감

또 다른 시선에서 사물을 보다



김준형(패미 1)

한성대 신문사 제8회 사진공모전에서 가작으로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진을 출품할 때 제가 활동하는 사진 동아리(PIG)에서 찍은 사진 한 점도 제출했는데, 사진을 고르는데 도와주신 동아리 선배,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작품인 '주의 하세요!' 는 주말에 비가 온 뒤에 산길 도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비가 와서 습하고 차가운 분위기나 날씨를 좋아하는데, 노란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사진에서 노란색이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준다기보다 좀 더 어둡고 위험한 느낌을 강조시켜주는 것 같아 마음에 들어서 출품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한옥없는 한옥마을'은 저의 동아리 PIG에서 출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맑은 날이라 하늘도 아주 깨끗하고 건물의 색도 아주 선명하게 나왔지만 처음 한옥마을에 와서 옛된 분위기를 위한 저는 실망했습니다. 골목에서 한옥의 고풍스러움이나 옛된 이미지는 없고 단지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벽돌과 콘크리트가 언덕위에 있는데도 마을 관리가 잘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유명하다는 거리는 사실 왜 유명하다는건지 잘 느끼지 못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글바글했고 그 내리막길이 아름답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실망을 가진 저는 여행지나 데이트 코스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흑백 사진이 그런 실망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 같아서 사진을 흑백으로 출품했습니다.



주의 하세요

김준형(패미 1)

아쉬운 작품들



환희 김관희(영어영문 4)



아빠 김경태(무역 4)



기다림 조제윤(한국어문 4)



시놉시스 김광섭(일반대학원 정보컴퓨터공학 1)



달동네의 하루, 도심 속의 노을 노을(경영 3)

주변을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야 진정한 사진 애호가

심사평



김명규 심사위원

<이력사항>
현사단법인 한국광고사진협회 회장
한국일보사 사진부 근무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근무
동방기획 사진부장 역임
명스튜디오 대표
국립전우신문 발행인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자문위원/홍보위원장
(사)한국광고사진협회 12대 회장

<수상경력>
주월진중사진전 입상
제13회 조일광고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제14회, 제16회 조일광고 한국경제인연합회
제28, 29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전 입선
서울시 발전상 금상 수상
제8회 대한민국사진문화상 수상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순학규)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김문수)
수원 보훈지청장 수상

신록이 캠퍼스를 감싸고 젊음의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제8회 한성대학교 사진공모전 출품작을 통해 역동하는 젊음의 의욕과 창의성을 보면서 큰 기대와 반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매우 짧습니다. 사진은 약 200년이 못 되는 역사 속에 인류 문화의 패턴을 바꿔버린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진가 Ansel Adams는 사진을 말하기를 Visual Language, 즉 '사진은 언어'라고 말했으며, 프랑스의 사진작가 Andreas Feininger는 Visual Communication, 즉 '소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어느 새 우리 일상 속 하나의 언어이자 소통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매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의 중추적 역할에 있어서 물론 IT기술의 발전이 우선시 되겠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은 사진공모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필름,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화하고 전화기와 카메라의 접목은 IT기술의 진수였으며 그 속에서 즐기는 여러분은 IT기술의 리더였습니다. 신기술을 스폰지처럼 흡수하여 사진을 언어로, 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는 여러분의 마인드는 젊은 시기에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도전과 열정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에 출품된 작품은 필름 촬영 사용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출품하신 작품의 대다수는 콤팩트급 카메라나 스마트폰 작품도 일부 보였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사진의 출현은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생활 속에 밀접해져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일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을 사진을 활용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아 반기웠습니다. 금번 심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촬영의 테크닉 보다는 젊음에 걸맞는 창의성과 기존 사진공모전의 진부함을 배제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여러 출력적 장르의 다양성을 꾀하고자 고심을 하였습니다.

출품된 작품의 내용은 대다수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들이어서 좀 더 친밀감을 느꼈으며, 공모전의 슬로건처럼 '순간, 기록이 되다'와 부합되는 내용 이어서 더욱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기성작가의 틀에 박힌 전철을 밟지 않고 각자의 생각을 담으려고 노력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진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노출이요, 둘째는 초점, 셋째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쉽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이해가 어려우라 생각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모든 사진은 '순간'에 포착 됩니다. 인물촬영에서의 결정적 순간은 이해가 되지만, 풍경사진에서 결정적 순간이라?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풍경사진 역시 결정적 순간이 당연히 존재 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풍경사진 촬영 시 서해바다의 일몰을 찍고 싶다고 할 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촬영을 한다고 동일한 사진이 나올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모든 계절, 모든 일기, 하루하루의 조건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할 뿐입니다. 그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 비로소 좋은 사진이 탄생되고 사진의 미학인 자연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촬영 시 내가 원하는 Framing과 원하는 앵글을 선택해서 노출, 초점이 성공적이라도, 후반작업으로 Trimming, 보정 등의 순으로 작품이 탄생 되는 것이라 합니다. 공모전 출품을 위해 촬영, 선택, 출력 등 일련의 과정 모두 작가의 감각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출품된 많은 작품 중에 두 점을 본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품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작가의 의도와 사상, 철학, 예화와 이야기 등이 숨겨져 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상에 오른 최우수작과 가작은 프로사진작가의 감각이 느껴질 정도의 수준급이라 평가 합니다.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혼란 공간 속에서 나만의 시각으로 설득적 이미지를 창조해낸 작품이라 보기 때문이니

사진발명의 초창기에는 사물이나 대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각에서 작업이 되었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심리적인 표현까지 사진의 주제가 되어 표현 방법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우수작 '현대인의 삶'을 출품한 홍수희씨(시각영상 3)는 바쁜 현대인의 삶을 한 잔의 커피로 대변 하였습니다. 모델의 시선처리 또한 정면이었으면 재미 없는 작품이 되었겠고, 아마도 맑은 낮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컵이 나왔다면 그 그림은 요즘 말하는 인증샷 수준에 그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도시의 벽면을 통해 지친 도시인의 삶을 한 장의 사진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 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작으로 선정된 '주의 하세요'를 출품한 김준형씨(매디 1)는 비가 젖은 도로를 촬영 하였는데, 너무나 흔히 보이는 소재를 찾아 작품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톤을 Black과 Yellow로 단순화하여 작품의 주목율을 높였는데 성공하였고, 비온 후의 도로는 주변 빛에 의해 반사가 되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 합니다. 만약 맑은 날의 도로였으면 이러한 분위기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미지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풍경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라면 저 멀리 우측 상단에 자동차 불빛이 하나 정도 보였더라면 최고의 작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상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눈길을 잡은 작품 몇 개를 소개하자면 먼저, 김관희(영어영문 4) 학생의 '환희'는 제목과 같이 환희에 잔 불꽃놀이입니다. 대개 불꽃이 터지면 불꽃에 집중하여 주변을 못 보는 실수를 범하는데 인물을 전방에 두고 즐기는 사람을 부채로 잡았기에 좋았고, 이러한 또 다른 시선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경태(무역 4) 학생의 작품 '아빠'에서는 돌 정도 되는 딸을 대견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빠의 모습에서 행복함이 보이고, 이에 보답할세라 예쁜 딸은 앙증맞은 표정으로 화답합니다. 화면 구성도 좋고 전체적인 구도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에는 성공했지만 호소력이 약한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조제윤(한국어문 4) 학생의 '기다림'이라는 사진을 보는 순

간 1973년 풀리처 상을 수상한 베트남 종군 기자 현 공 니 웃의 '소녀의 절규'라는 상황이 다른 사진이 연상 되었습니다. '소녀의 절규'는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에서 뛰어나오는 것이고, '기다림'은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앞의 주인공을 위하여 촬영자가 좌측으로 두 발자국만 이동해 찍었으면 좀 더 탄탄한 화면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노을(경영 3) 학생의 '달동네의 하루+도심 속 노을'은 세월의 흐름과 서민의 애환이 가득해 보이는 달동네와 도시의 휘황찬란한 두 장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을 한 점으로 묶어 표현하는 방법이 훌륭해 보이며, 아쉬움이라면 달동네 촬영은 흐린 날 또는 먹구름이 흐르는 분위기라면 더욱 감성이 풍부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섭(일반대학원 정보컴퓨터공학 1) 학생의 '시놉시스'는 회색 모노톤의 벽 앞을 배경으로 놓인 의자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생명 없는 콘크리트 회색 벽에 담겨진 인물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듯 뻗어 오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잘 처리 되어 보이나, 출력 시 코팅을 함으로 원래 작품의 콘트라스트를 잃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도 정다은의 '건배', 니승찬의 '같은 생각', 손재홍의 '서울을 마시다', 이소람의 '거대한 사물' 등도 자기만의 시각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엿 보이는 작품이 있습니다. 문자는 학습을 통해 읽고 이해를 한다면, 사진은 보고 느끼며 이해를 하고 특히 감성에 호소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심사를 마치며 "풍부한 생활 경험을 통해 피사체와 교감을 하고 나의 생각을 사진에 담아 전달하는 'Visual Communication'이 또한 대학생활에 멋진 활력소가 될 테마가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상을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며, 수상작과 낙선작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의 차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좀 더 주변을 관심과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진애호가에 한발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디지털 포럼 2014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

한 영상이 YouTube에 올라왔다. 유명 연예인이 지하철에 타 은근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마술을 선보이거나, 엄청난 게 큰 두유를 먹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빠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무관심하다. 이 영상은 서울디지털 포럼의 홍보 영상이다. 작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의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공적인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 디지털포럼에 수습기자들이 함께 했다.

지난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SBS에서 주최하는 '서울디지털포럼 SDF 2014(Seoul Digital Forum SDF 2014)'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되었다. SDF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혁신을 이뤄낼 영감을 공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비영리 국제 포럼이다.

올해 11주년을 맞은 SDF는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라는 주제로 각계의 연사들을 초청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문제의 해결,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날 5월 21일 SDF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인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기조연설로 막이 올랐다.

전길남 교수의 '안전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전길남 교수는 1982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해 '아시아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린다. 이날 그는 '인터넷 선진국의 역할과 안전한 인터넷 구축'에 대해 연설했다.

전길남 교수는 "지금 전 세계 27억 명이 인터넷을 쓰고 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인구 90%인 70억 명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앞으로 늘어날 새로운 인



▲ 전길남 교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나라인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젊은이 20% 정도를 개발도상국으로 보내 2년 정도 체류하며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돕도록 하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전길남 교수는 "40년 전 인터넷을 개발할 때는 연구 단계에서 안전한 인터넷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그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길 바라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안전한 원자료를 바라는 것처럼 인터넷도 마찬가지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인터넷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이스 폰 안 '한국 청년들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

두 번째 연설자인 루이스 폰 안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보안문자를 입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캡차'와 무료 언어학습 프로그램 '듀오링고'의 개발자로 '인터넷 공간에서 1초도 낭

비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루이스 폰 안은 단순히 인터넷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주목했다. 웹 인증 문자 '캡차'를 입력하면 서적과 문서들을 디지털 문서로 바꾸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는 창업을 하려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성공적이었던 것들은 대부분 공적인 가치에서 시작됐다"며 혁신적 지혜를 통해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권했다. 무료 언어학습 프로그램 '듀오링고'는 지난 27일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니코 멜레 'SNS를 통해 개인의 영향력 키저'

『거대권력의 종말』의 저자인 니코 멜레 하버드대 교수는 디지털 기금부터라도 안전한 인터넷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개인의 영향력을 얻었음에도 지나친 개인화로 자신이 보려는 것만 보고

있으며 "거대권력이 어찌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쉽게 얻은 가치(정당한 범죄자, 자유시장,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정당한 가치를 실현될 수 있게 거대권력에 맞서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니코 멜레 교수는 질의응답과 사인회 시간을 가졌다.

서울디지털포럼(SDF)2014의 둘째 날인 22일에도 청중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혁신적 지혜에 관해 각기 다른 15가지 주제로 연사들이 연설했다.

<셜룩>의 공동크리에이터, 프로듀서인 스티븐 모팻과 수벌추 '기술은 사람을 향하는 것'

BBC의 세계적 히트드라마 <셜룩>의 공동크리에이터, 프로듀서인 스티븐 모팻과 수벌추가 '셜룩 홈즈, 다시 태어나다: 혁신적 지혜의 귀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연설장 안은 <셜룩>팬들의 열기가 가득했고, 끊임없는 셔터세례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이날 '혁신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셜룩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바꾼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과거의 셜룩이 일기를 썼다면 현재의 셜룩은 블로그를 쓴다. 이러한 점이 과거를 현재에 맞게 바꾼 것이다"고 말했다. 현시대의 기술을 향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스티븐 모팻과 수벌추는 드라마 셜룩의 제작비와 캐스팅에 관한 이야기, 드라마 제작중에 있었던 일화들을 이야기 하며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드라마 셜룩과 같은 흥행작을 만들기 위한 영감과 동기의 원천에 대해 두 사람은 '열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이 성공할 지는 아무도 모를 때 문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과 지혜에 대해 그는 "지혜 없는 혁신은 투명한 시계와 같다. 투명한 시계가 혁신적인 기술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 시계를 아무도 볼 수 없다. 혁신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을 향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했다.

연설이 끝나고 난 후, 두 사람은 연회장 밖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그 현장은 드라마 셜룩의 팬들로 가득했다.

황경식 교수와 손화철 교수의 '디지털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 지혜'

20번째 연설로 황경식 교수와 손화철 교수가 디지털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 지혜(Innovative wisdom)'를 설명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황 교수와 손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소통이다. 이 소통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세상을 유토피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 정보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 유토피아가 아닌 정보 디스토피아 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교수는 "첨단 문명과 후진국 문화의 간극 속에서 우리 사회가 신음하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지적했다. 이 격차 속에서 '우리는 좋

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두 교수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연결된 사람인가, 연결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페이스북이나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 거대 IT기업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와 SNS 등 서비스로 세상을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연결된 대상일 뿐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술 격차나 기술 문법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자유는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에 '나'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디지털포럼(SDF)2014는 미래를 위한 혁신적 지혜와 기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의 '미래와 있는 미래'라는 의미와 뜻을 같이한다. 포럼은 29가지 주제의 연설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14서울디지털포럼(SDF)에서는 대니얼 데김, 마크 랜달, 가이호프만, 롭 해서는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 정보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 유토피아가 아닌 정보 디스토피아 속에서 산다는 것이다.

*거대권력: 언론, 정당, 정부, 군부, 기업 등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들.

임태미 수습기자 taem14@hansung.ac.kr
한지선 수습기자 mongrock@hansung.ac.kr



▲ 스티븐 모팻과 수벌추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캡차 개발자인 루이스 폰 안이 연설하고 있다.

심리심리 심리심리(心心理)는 마음 속을 계대로 알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학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나를 신경 쓸까?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이라는 여름도 다가오고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많이 신경 쓰일 시점이다. 굳이 계절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들은 평소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 예컨대 '오늘 옷이 좀 이상하지는 않나?' 헤어스타일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웃는 것은 아닐까? 같은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정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많이 신경 쓸까?

거꾸로 당신은 어떤지 한 번 생각 해보자. 어찌 지하철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무슨 웃을 입고 있었는지, 교실 옆자리에 앉은 사람 옷에 김치 국물이 튀어있진 않았는지, 대각선 방향에 앉은 사람의 화장이 좀 뜨진 않았는지 등등 타인의 외모나 행동의 디테일에 대해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물론 드물게 눈에 띄는 무엇을 포착했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그 또한 며칠 후면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주는 주의를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내가 주목 받을 가능성을 상당히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스포트라이트(spotlight) 효과'라고 한다. 마치 내 머리 위에만 가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

고 내 외모와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할 거라고 여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착각이다.

실험을 하나 살펴보자. 대학생에게 좀 튀는 티셔츠, 예컨대 아이돌 가수의 사진이 박힌 티셔츠를 입고 교실에 들어가게 했다. 아마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이 자기 것인 마냥 느껴졌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학생을 잠깐 교실 바깥으로 불러 교실의 학생들 중 몇 %나 본인이 튀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것 같은지 물어봤다. 그러던 적에도 50% 정도는 자신의 티셔츠를 눈치챘을 거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방금 전 나간 학생이 어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약 25%정도의 학생만이 실제로 그 티셔츠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아무리 튀는 행동을 해도, 스스로가 예상하는 것의 '절반' 밖에 남의 시선을 모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튀는 행동을 해도 그리한테 일상적인 행동들은 얼마나 주목 받지 않고, 잘 잊혀졌는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날 쳐다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결국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걱정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선'을 내 멋대로 상상해서 걱정하는 것이 된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있지도 않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뇌내망상'에 가까우며 어쩌나 내 정신력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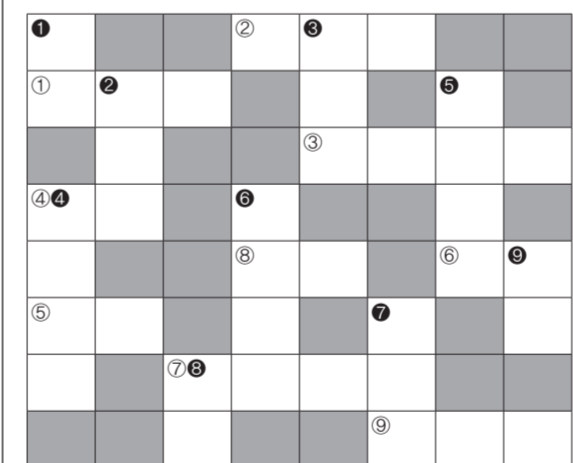
를 기억해보자.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만들어낸 속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진영

연세대학교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심리학도.
트위터 @imaum0217
페이스북 /jinyoung.park.311493

저서
『눈치보는 나, 착각하는 나』
『심리학 일주일』

가로세로



- 이름:
- 학과/학년/학년:
- 연락처:
-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
- 한성대신문사에게:

이번 가로세로 당첨자는
정규연(의생학 1), 이예림(행정 2)학생입니다.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 가로
①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000를 풀다.
② 중국 동황 동남쪽에 있는 석굴 사원. 동황 천불동.
③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신,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④ 보통 근세에서 근대에 걸친 서양 상층계급 계층의 응접실을 말한다.
⑤ 잘하지 못하여 그릇된 점. 또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그르치는 행위.
⑥ 생애 초기부터 관찰되는 경서.
⑦ 팔을 굽히고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위팔의 앞면에 위치하는 근육.
⑧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의 새.
⑨ 한 해나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둘로 똑같이 나눌 때 앞의 절반 기간.

- 세로
① 참과 거짓을 아울러 이르는 말. 헛되이 잃음.
② 아몬드가루, 밀가루, 달걀흰자, 설탕으로 만드는 지름 5cm 정도의 프랑스 고급 과자.
③ 미용실에서 웨이브를 연출할 때 사용하는 둥근 형태로 된 기계.
④ 이탈리아 레가노 태생의 음악가. 영화<아미데우스>에서 볼프강 아미데우스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⑤ 유약을 바른 도기.
⑥ 봉지나 봉투 등을 열어서 시간이 바짝 다가왔다는 뜻. Coming Soon.
⑦ 학교나 직장 따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거나 출근한 사람에게 주는 상.
⑧ 경기도 최동남쪽에 있는 한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쌀과 도자기의 고장.
⑨ 대가 중의 80%를 차지하는 기체. 피자봉지 안에 많이 들어 있다.

포럼소식

제 2 회 Y-CSR 컨퍼런스

- ▶ 일시: 7월 4일(토) 09:00-18:00
- ▶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 ▶ 내용: UNGC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기업 및 사회에 대한 토론의 장
- ▶ 모집대상: 전국 대학(원)생 1,000여명
- ▶ 신청: 6월 28일(토)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http://www.youthcsrconference.com)에서 신청

한국대학생경제포럼(kusef) ERL 21기

- ▶ 모집대상: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의견을 갖고 싶은 대학생(대학원생/후학생/졸업생) 130명
- ▶ 모집일정: 5월 23일(금)-6월 13일(금)
- ▶ 활동기간: 6월 24일 ~ 8월 12일 매주 화요일 총 8회 PM 7:00 ~ (약 2시간)
- ▶ 활동장소: 서울 - 한국경제신문 분사 18층 다산홀
- ▶ 교육회비: 3만원
- ▶ 문의사항: 모집공고 게시글(http://cafe.naver.com/kusef/22369)에 댓글로 문의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소셜다이닝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밥 먹기 레벨' 1단계 편의점에서... 5단계 중국집, 6단계 일식집, 7단계 스파게티 전문점... 마지막 9단계인 술집에서 혼자 마시기까지, '혼밥족'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 고깃집, 술집 등에서 혼자 먹기란 쉽지 않다. 1인 식당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혼자 다른 테이블 사람의 등을 보고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는가. 행복은 함께 해야 두 배라는 말이 있듯이 밥도 함께 먹을 때 더욱 맛있다. 혼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밥 먹기보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곳에서 서로 취미도 공유하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도 하며 밥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셜다이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셜다이닝이란?

소셜다이닝은 고대 그리스의 식사문화인 '심포지온(Simposion)'에서 비롯된 단어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파티 문화의 하나로 대중화되어 Feasty, Eatwith, Co-lunch 등 여러 커뮤니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밥은 집에서 가족들과 먹는 것 혹은 친구들과 먹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소셜다이닝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일까. 바로 1인 가구 수의 증가가 큰 요인이다. 통계청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2014)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무려 488만이다.

즉, 이미 전체 가구의 네 가구 중 하나가 1인 가구인 것이다. 온라인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원통과 오피스텔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나 혼자 산다', '식사를 합시다' 등 1인 가구를 제로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출처〉 소셜다이닝 '집밥'

현재 우리나라에는 '집밥', '특파티', '미팅데이' 등 여러 소셜다이닝 커뮤니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소셜다이닝 도입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호스트(모임 개설자)로 모임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화, 레저, 스타디 등 다양한 활동이 더해져 점차 주목

을 받고 있다. 소셜다이닝은 호스트(Host)가 모임을 만들면, 게스트(Guest)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임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소셜다이닝 커뮤니티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집밥'에 대해 집중 취재해 보았다.

한지선 수습기자 mongrock@hansung.ac.kr

직접 참여해본 소셜다이닝!!!!

소셜다이닝 '집밥!'

집밥이 만들어진 취지??

'집밥'의 대표 박인은 "우리 도시가 점차 삭막해지고, 외로워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집밥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밥'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했다. 나 홀로 1인 가구였던 창업자가 집밥을 나누는 모임을 SNS를 통해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최근 1인 가구의 수(24%)가 급증하면서, 소외, 외로움, 소통의 필요성과 관계 형성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편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나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밥'을 매개로 하는 따뜻한 집밥과 같은 모임을 추구하는 소셜다이닝 집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처음 본 사람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가족처럼 밥상을 나누는 것이 그 취지이다.



사진 찍으며 브런치 하실래요?

강동아트센터-동산공원-명일공원-센터공원-동자공원을 동선으로 공원 산책을 하며 사진도 찍고, 브런치와 함께 담소도 나누는 소셜다이닝 모임에 기자가 직접 참여해보았다.

모임 주최자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모임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모임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서 참가한 사람들과 사진도 찍

고, 취미, 하는 일, 날씨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산책을 끝마치고 브런치를 먹기 위해 카페로 들어갔다. 주최자는 "참가비가 없어서 그런지 신청자들의 모임 참가율이 적다"라고 말했다. 참가비가 있는 모임의 경우 모임에 신청할 때 미리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참석률이 높다. 하지만 참가비가 없는 모임의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참석률이 낮다. 또한 주최자는 "오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참가자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수는 적지만 그만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을 이었다. 담소를 나누며 브런치 식사가 끝나고 모임은 끝이 났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인 사진을 찍으며 편하게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비가 없어 부담이 적은 만큼 모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만 지켜준다면 정말 재미있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다. 소위 '사람 냄새'가 나는 편안한 모임에서 오전 시간을 평소보다 더욱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한 번 참가해보길 바란다.

마시기만 하던 맥주, 이제 만들어 보자!



MBC '나 혼자 산다'의 테프콘이 참가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SOMA 자가양조공방에서 맥주 만들기' 소셜다이닝 모임에 찾아갔다. 3호선 옥수역에 내려 걸어서 10분가량에 위치한 SOMA 양조공방 입구 계단부터 풀풀 올라오는 술 익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 모임에서 만드는 맥주는 부분 곡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이다. 원래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8-9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는 약 4시간 만에 만들기 위해 맥아를 평소보다 곱게 갈아 맥즙이 빨리 우려내게 한다. 이렇게 4시간 동안 만든 맥즙을 발효시켜 10일 정도 뒤에 발효된 맥즙을 병에 담은 병입 과정을 거친다. 20일 뒤에 본인이 만든 맥주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찾아간 맥주는 냉동고에서 최소 20일 정도 더 숙성시킨 뒤에 마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공방의 교육실에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1시간가량 교육을 받는다.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과 향 하나하나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교육이 끝나면 본격적인 맥주 만들기가 시작된다. 맥주를 만드는 과정 동안 1시간 30분가량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이 1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맥주와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서 교육실에 준비된 맥주와 함께 담소를 나눈다. SOMA 매니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맥주 교육을 이어가자는 것보다 일회성 교육을 더 좋아하는 듯 하다. 이에 한 소셜다이닝 모임 주최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1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완성된 맥주를 식혀 통 안에 넣는 과정으로 맥주 만들기는 끝이 났다.

직접 체험하고 결과물은 가져간다는 것이 다른 모임과 다른 특별한 점이다. 그리고 단순히 친목도모의 분위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상적이었다. 단, 다른 소셜다이닝 모임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긴 편이니 유의할길 바란다.

학교C

학교C: 핵심교양C는 치명적인 매력의 문화정보만을 선별하여 전하는 기사 코너입니다. 교내 교양 중 가장 치명적인 감각인 핵심교양A, B와 같이 한성인이 교양을 쌓는데, 상식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셜다이닝, 낯선 사람들과의 시간

1. 월드컵 중계응원 모임. "누가 이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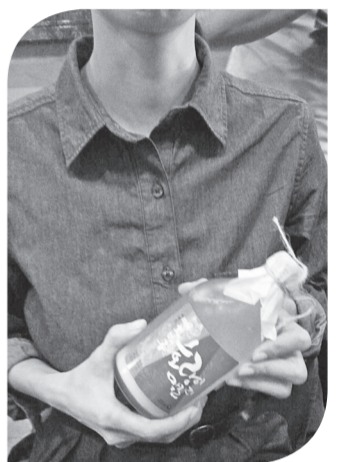
거리응원을 하기에 는 좀 애매한 시간대의 브라질 월드컵입니다. 레비테이션 스튜디오에서 편안한 한철아응원을 함께 보내는 건 어떠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볼 수 있고 원하면 샤워도 가능합니다.

- 일시: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2시(H조 알제리vs벨기에) 6월 18일 수요일 오전 6시 (H조 대한민국vs러시아)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2시(H조 벨기에vs러시아)
- 장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레비테이션(건대입구역, 어린이대공원 역에서 5-6분거리)
- 회비: 2만원(시설 이용료+맥주 또는 음료수 2잔+사이트 수수료)
- 준비물: 편안한 복장, 먹고 싶은 음식 2인분
- 특이사항: 경기 후 잠시 취침하고 우리나라 경기 시청 가능합니다.
- ※오전 1시 경기에서 4시 경기까지 이어 시청하려면 4시 모임도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 문의: <http://w.zipbob.net/1mzbJAq>

2. 막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 자리에서 막걸리 만들기는 힘들어도,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주막 수다의 매니저가 직접 막걸리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일시: 6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막걸리 전문점 수다(SUDA)
- 회비: 2만5천원
- 함께하는 음식과 막걸리: 모듬전, 오징어순대, 유자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부자 10도 등
- 문의: <http://w.zipbob.net/1jcACxf>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문화읽어주는 기자 오그림

는 계획이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잘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도 한다. 1년 동안 유럽에서 그렇게 멋지게 영상을 만들며 일하다가, 영국으로 가는 것이다. 제 2의 비틀즈를 찾아, 그들의 데뷔 뮤직 비디오까지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와 1년 동안의 과정을 영화로 개봉하는 것이다.

이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처음 이들은 프랑스를 찾았다. 미리 한인민박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물물교환을 메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이들에게 홍보영상을 부탁하지 않았다. 단지 이들의 대단한 패기를 높이 평가해줄 뿐이었다. 유럽을 일주하기위해 이들은 계속 움직였다. 나침반과 지도를 손에 쥐고, 길고 또 길었다. 그리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를 찾았다. 이곳에서도 이들은 아무 답신도 받지 못했다. 이에 호재는 긴 고민 끝에 친구들에게 말했다. "한국 갈까?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메일답신 하나가 왔다. 처음으로 유럽에서 이들의 계획대로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근처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 국가의 숙박업소도 부터 연이어 메일을 받게 된 것이다. 숙박업소 주인들은 이 잉여들을 스카웃 하기 위해 숙식제공뿐 아니라 추가 수당에 비행기 티켓까지 제안했다. 그렇게 전성기를 맞은 잉여들은 처음 계획대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전성기를 뒤로 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에 힘을 쏟는다. 이후 한 편의 연극처럼 이들은 여러 시련을 맞게 되고 또 극복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9년의 약 1년간 이들의 이야기는 2013년 독립영화로 개봉되었다.

잉여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를 때 쓰인다. 영화 속 잉여들은 생각만 많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신들을 잉여라 소개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단한 생각을 행동으로 직접 옮겼고, 이 영화로 이들이 잉여가 아님을 증명할 듯하다.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위한 스펙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와 다른 생각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을 잉여 취급한다. 영화 속 네 잉여들은 대학을 관두고 유럽으로 떠났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잉여로 불리기 충분할 조건인 잉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잉여짓으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하얗게 불태운다. 비록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는 몇 잉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들의 잉여 짓을 봤으면 한다. 아마 당신은 새하얗게 불탄 가슴으로 당신의 잉여 짓을 모색할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 친구들과, 혹은 혼자서 외국을 돌아다니리라' 대학 입학 전 꿈은 다짐을 했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장 큰 문제였던 학기 중은 학기 중대로, 방학은 방학대로 학원, 알바에, 대외활동에.. 핑계거리가 잇따랐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뒤엔 14년도 여름방학을 맞는다.

당신은 어떤 해외여행을 꿈꾸고 있나. 전공 수업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 '내가 대학 시절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여행을 하거나 휴학을 해도 해외여행을 마음먹기도 어렵다. 어느 대학생이나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하는 사람은 한다'는 말처럼 가는 사람은 가더라.

지금부터 네 잉여의 유럽여행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기 스스로를 잉여라 부르는 네 명의 20대 초 대학생들이 있다. 여름방학동안 등록금을 벌다가 반밖에 구하지 못하자 유럽을 떠났다. 잉여들의 이야기가 독립영화에 담겼다.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다.

영화는 잉여들의 리더, '호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야, 대박이야. 땀 한 톨 없이 유럽에서 여행하는 방법을 찾았어"

네 명의 잉여들은 영화를 전공한 대학생들이다. 한 팀이 되어 영상을 제작하였고, 여름방학을 맞아 이들은 등록금을 벌기위해 영상제작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하지만 등록금의 절반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잉여들은 생각했다.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여행하자!" 이들은 수중에 단 80만원만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땀 한 톨 없이' 여행하기 위해 몇 가지 대단한 계획을 생각한다.

'물물교환'식으로 '한 톨 없이', 숙박업소의 홍보영상을 찍어주고 숙박을 해결하고, 음식점의 홍보영상을 찍어주고 식사를 해결하자

본교 공론의 장과 대학언론을 말하다

여러 사람이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장소를 '공론의 장'의 장이라 일컫는다. 대학에서 공론의 장은 학교, 학생회 그리고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학생이 학교와 학생회를 일대일로 만나 의사를 전달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에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공론의 장은 어디에 있을까? 또한 대학언론은 예전부터 이들의 공론의 장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우리학교 공론의 장과 우리학교의 대학언론 중 하나인 한성대신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공론의 장은 어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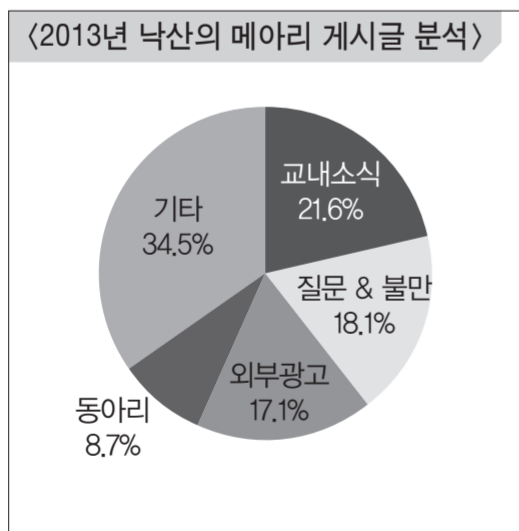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당시 국민회나 재판, 상업, 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아고라는 '공론의 장'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한성인의 아고라, 공론의 장은 어디인가?

우리학교 대표적인 공론의 장, '낙산의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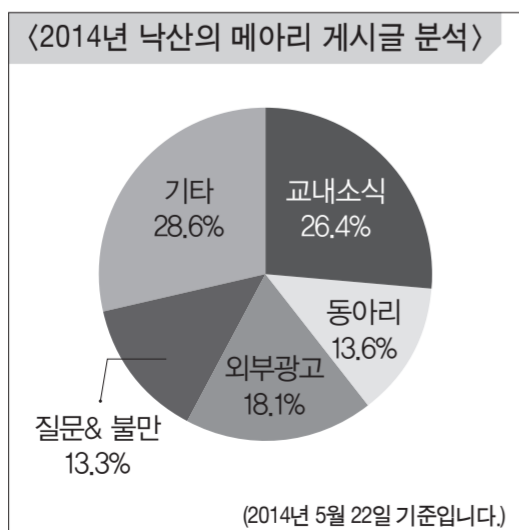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공론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인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이다. 낙메는 자유게시판, 학생행사, 수업정보교환, 휴강·보강 공지, 분실물센터, 아르바이트·구인, 베품시장, 한성앨범의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의견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낙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한다. 또한 동아리 모집 글이나 교재판매 등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낙메의 게시판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유게시판이다. 그렇다면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글들이 주를 이룰까? 2013년과 2014년(2014년 5월 21일 기준) 게시된 글을 유형대로 분석해 보았다. 2013년에는 총 2260개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교내소식(행사·프로그램 안내·자치기구 등)은 21.6%(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 질문&불만 18.1%, 외부광고 17.1%, 동아리(내·외) 8.7%, 기타(분실물·구직광고·교재판매 등) 34.5%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총 6397개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교내소식 26.4%, 질문&불만 13.3%, 외부광고 18.1%, 동아리 13.6%, 기타 28.6%로 분석되었다.



▲ 2013년 낙산의 메아리 게시글 분석



▲ 2014년 낙산의 메아리 게시글 분석

특히 지난해에는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인한 시국선언,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등 사회적 문제와 성적세척변경 등의 교내 문제로 인해 낙메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글과 댓글을 남겨 열띤 의사소통이 진행되었다.

작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찢은 본인입니다'였다. 이 글은 46,836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낙메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녕들하십니까' 열풍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찢고 그 행동을 인증해 논란을 야기하며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까지 글을 쓰는 등 당시 낙메는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같은 사태들이 지나가고 낙메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도 게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학생들이 낙메에 접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전반적으로 게시글의 조회수를 증가시켰다.

현재 낙메는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낙메는 학교 홈페이지에 속한 실명제 게시판으로 인해 학생들은 글을 쓰는데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낙메는 학교 홈페이지에 속한 게시판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높은 공론의 장임이 틀림없다.

우리학교 비공식적인 공론의 장들

실명제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을 주로 이용한다. 또한 낙메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SNS에서도 한성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디시인사이드 한성대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한성대 갤러리는 학생들의 서명으로 2007년에 개설되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특성상 남자이용자들이 많고 현재 디시인사이드에는 하루 10여개의 글들이 올라오며 주로 입시결과와 학교와 관련해 궁금한 점의 글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디시인사이드에는 재학생보다 타대생과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이 많이 유입되는데 특히 입시철에 그 유입이 증가한다. 이에 많은 학우들이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타대생들의 유입이 많아 한성인만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그루

본교 학생이 '한성인의 쉼터'라는 모토로 익명커뮤니티인 '한그루'를 만들었다. 한그루는 게시판, 강의정보, 생활정보, 대학연합게시판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공론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게시판, 익명게시판, 질문게시판, 러브어페어, 대나무숲 등이 있다. 학기 초마다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붙이는 등 학생들에게 한그루 커뮤니티 사용을 독려했으나 현재 어떤 날에는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한그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대의 익명커뮤니티들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대학교의 '고파스'이다. 고파스는 학생들만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7년에 개설되었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3만명이며 하루 게시글은 2,000~3,000건에 달한다. 고파스는 학생회와 언론사, 동아리 등 학내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파스 운영자인 박종찬 씨는 "고파스가 생기기 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이용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다보니 자유가 많이 위축되었으며 관리자가 학생의 글을 함부로 지우는 사건이 발생한 후 학생들만의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증폭되었다. 고파스는 이런 여론을 잘 수렴해 만들어진 커뮤니티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의 커뮤니티는 '성대사랑'이다. 성대사랑은 성균관대 학생, 동문 등과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이다.

'쭈다쟁이'는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의 커뮤니티이다. 쭈다쟁이는 성신여대 학생이 만든 커뮤니티이다. 쭈다쟁이는 성신여대생이 수다를 떠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학내소식들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대의 커뮤니티에 비해 한그루 커뮤니티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좋은 익명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우리학교 공론의 장으로 성장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한그루의 총괄대표인 김민석 학우는 "서버 구입 및 운영에 대한 금전도 부담스러운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 대학커뮤니티들이 모여있는 유캔(ucan)이란 곳을 알게되었고 연락하여 조언을 얻게 되어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주춤하고 있지만 한그루의 성장을 위해 페이스북 및 오픈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벤트를 통해 신입생들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전했다.

◆ 익명의 메아리

한성대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하나인 '익명의 메아리'이다. 익명의 메아리는 유머, 홍보, 정치관련 글 등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선정성이 높은 글들이 다수 올라와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타대의 모바일 익명게시판이 활성화된 반면에 우리학교의 학생들에게 익명의 메아리의 존재는 미비하다. 대체로 사회적 이슈와 학교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다. 또한 글을 공유할 수 없고 글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게시글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익명의 메아리 글은 파급력이 약해 공론의 장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

◆ 페이스북

그 이외에도 페이스북에서 익명으로 활동 중인 '마을버스', '중문', '한성대학교 대신 말해드려요'가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접근이 용이하고 '좋아요'만 누르면 소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들은 학생이 운영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글을 공감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댓글을 다는 학생들의 신분은 드러난다. 이 페이지들은 주로 분실물, 연애고백 등 제보 위주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일상적인 이야기 이외에도 학교에 관한 제보가 들어온다고 추측할 수 있다.

SNS라는 특성상 파급력은 좋지만 공식적인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놓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같은 채널은 이슈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향후 페이스북은 중추적인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다른 공론의 장

◆ 대자보

대자보는 오랫동안 대학가에서 상징적인 공론의 장으로 여겨졌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글을 교내에 붙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다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며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했다. 타대의 경영대학이나 정치대학에는 이러한 의견개진과 관련된 대자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학교 역시 국정원 대선 개입 시국선언과 대학가의 '안녕들하십니까' 열풍 당시 많은 대자보들이 등장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판과 학교 곳곳에 붙여졌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뿐 지금은 학생회와 동아리들의 소식을 알리는 정도의 대자보만이 남았다. 우리학교는 우리학교만의 대자보 문화가 존재하지 않아, 대자보를 통한 공론의 장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 대학언론

대학언론은 공론을 모으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매체이다. 하지만 과연 대학언론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어느 대학언론은 학교 측의 검열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어느 대학언론은 학생회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취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민주화시대라고 불렸던 7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대학언론은 그 상징성이 컸고, 파급력 역시 대단했다. 하지만 현재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언론은 학교에 속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몇몇 학생들은 자치언론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학신문을 읽거나 대학방송을 듣지 않는다. 심지어 이러한 대학언론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학교에는 수많은 공론의 장들이 존재한다. 이에 한성대 신문사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학교 공론의 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공론의 장이 어디라고 생각 하나'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이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낙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소식을 알기 힘들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낙산의 메아리는 공식적인 우리학교의 공론의 장으로서 신뢰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 학생들의 의견처럼 낙메는 매번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한성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접속해야해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지만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적인 소통에 그치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낙메와 달리 접근성이 높은 페이스북은 파급력이 크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고 학교와 관련된 공식적인 페이지가 부재해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많은 공론의 장이 있지만 학생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할 만한 대표적인 공론의 장은 꼽어서 말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 의미하는 공론의 장은 학교와 학생회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교와 학생회는 낙메가 쌍방향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공론의 장이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응하여 학생의 목소리로 변화를 시도해야한다. 진정한 소통이란 서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통이 있어야만 학교를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러스트) 성민진(시각영상 4)

한성인에게 대학언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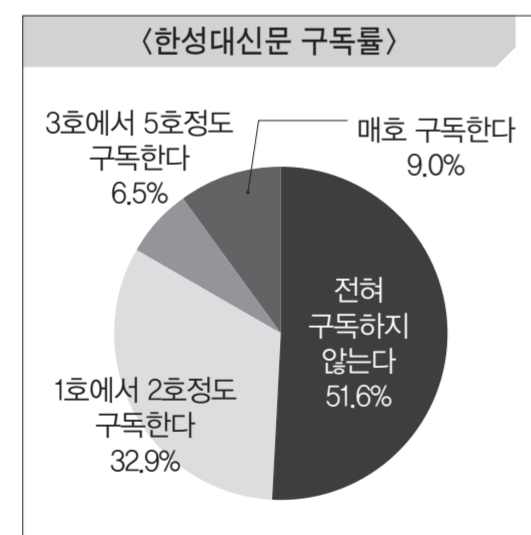
대학언론은 학생들을 대변하고, 대학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하거나 그 공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한성대신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한성인은 한성대신문과 대학언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설문조사 실시했다. 설문에는 155명의 학생들이 응했다.

한성대신문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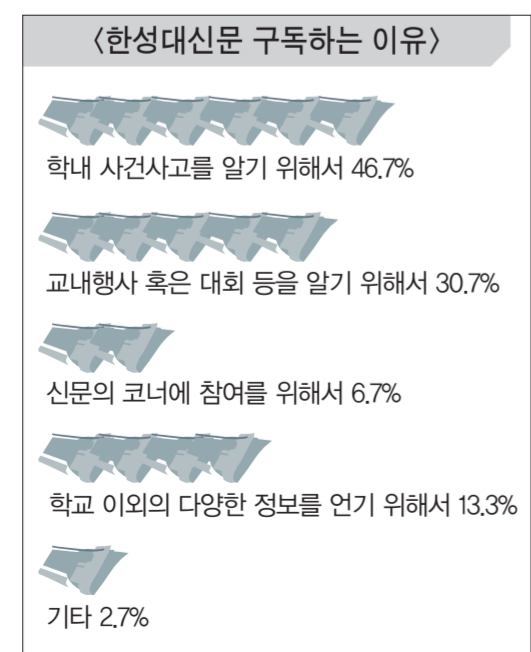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한성대신문 구독률은 어떤가? 구독률은 48.4%, 비구독률은 51.6%로 비구독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들의 구독빈도는 '1호에서 2호 구독'이 68%, '3호에서 5호 구독'이 13.3%, '매호 구독'이 18.7%로 정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학생들은 적었다.

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하는 주된 이유는 '학내 사건사고를 알기 위해서'와 '교내 행사 혹은 대회 등을 알기 위해서'였고, 대학언론의 역할은 '학내 뉴스 전달'이라고 답했다. 이를 보아 학생들이 대학언론을 통해 교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독률과 구독빈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신문을 구성하는 콘텐츠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단지 학교에 무관심해서일까?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를 '신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67.5%)라고 다수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학생들은 "구독층을 늘리기 위한 홍보가 부족하다", "발행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 "배치



▲ 한성대신문 구독률



▲ 한성대신문 구독하는 이유

Q. 한성대신문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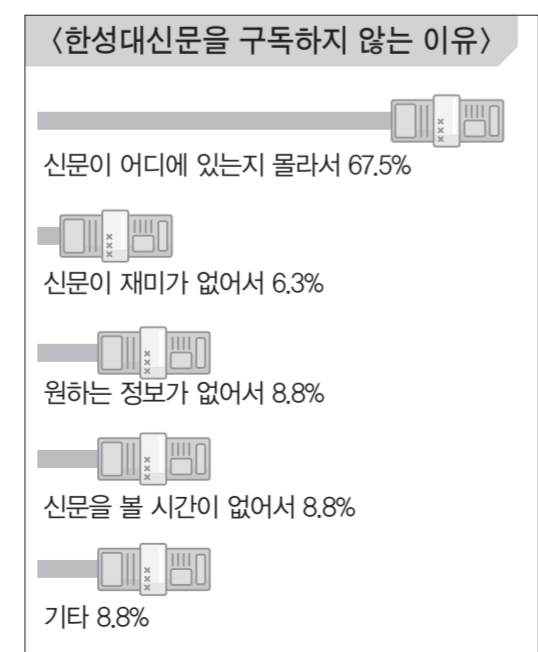
- "신문을 통해 교내 행사 및 사건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지난번에는 신문을 통해 심리검사를 받아 보았다. 매번 다양한 일용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좋다"
- "학교에 대한 정보, 그 외에 이슈를 저절로 알게 되어서 좋다"
- "컨텐츠가 부족해서 흥미를 끌지 못해서 읽는 게 지루하다"
- "학내 비판 기능 부족하고, 사립이슈를 다루는데 찬반씩 놓는 느낌이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신문이 찬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같다"
- "신문장여교녀가 잘 구성되어 있다"
- "발행주기가 저절로 학교의 일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매체로 학생기자들이 신문을 만들라는 취지가 좋다"
- "많은 학생들이 신문 배포장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 "홍보활동에 알맞은 배치를 유지하고, 발행주기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함의 색이 너무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다" 등 신문홍보의 필요성과 배치함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문의 홍보부족을 원인으로 삼았다.

현재 한성대신문은 발행일 아침에 학생들에게 직접 손 배포를 실시하고, 학생들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부스를 설치해 한성대신문 홍보와 수습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침 손 배포를 할 때 신문받기를 거절하는 학생이 많고, 이메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스팸차단하는 학생도 있다. 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를 비판 홍보의 부족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고 이외에도 많은 대학학보사들이 낮은 구독률로 고충을 겪고 있다.

김민식(서울대학교 대학신문) 편집국장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가 생겨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방대해졌다. 종이신문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대학신문의 구독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신문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신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SNS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이 한성대신문을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학내정보 전달일까,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일까. 학생들은 한성대신문에 바라는 점으로 '유명인사, 졸업생의 인터뷰', '참여할 수 있는 코너 기획',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 '일반학생이 알기 어려운 정보 제공', '학생들의 참여 유도', '학내 비판', '객관적인 보도' 등을 제시했다.



▲ 한성대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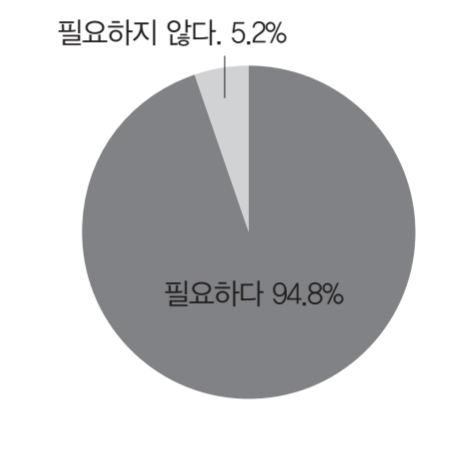
대학언론의 필요성에 공감해

앞서 한성대신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대학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학언론은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가 94.8%로 압도적인 응답을 얻었다. 하지만 한성대신문의 구독률은 48.4%에 그쳤다. 이는 신문홍보와 콘텐츠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 대학언론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학생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대학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보전달의 측면과 비판과 견제의 기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 등을 대학언론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대학언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5.2%의 학생들은 미약한 존재감과 단순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 독자수가 적은 것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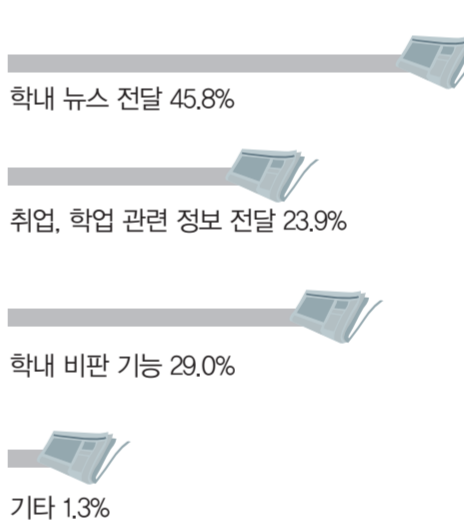
대학언론의 역할에 대해 용찬호(숭실대학교 숭실시보) 편집국장장은 "언론의 목적을 정보전달로 볼 수도 있지만,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때문에 대학언론은 학생들의 귀와 눈이 되어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대학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성대신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한성대신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보았듯이 학생들은 대학언론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언론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한성대신문은 대학언론으로서 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공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대학언론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많은 학생들이 우리학교 공론의 장은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말했다. 낙산의 메아리는 공식적인 공론의 장이지만 낙산의 메아리는 학교,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쌍방향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특성상 피급력이 크고 확산이 빠르지만 공식적인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아 공식력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몇몇 학생들은 낙산의 메아리와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한성대신문을 공론의 장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한성대신문을 읽지 않았고 그 이유를 신문 배포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한성대신문이 현재 학내 구성원의 무관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신문사 자체의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한성대신문은 학생들의 귀와 눈이 되고 학생들의 소식을 보고 들으며 입이 되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또한 한성대신문은 학교, 학생회, 학생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스스로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교와 학생회도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공론의 장 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곳이 공론의 장이 되듯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학교구성원이다. 이러한 장소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공론의 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 역시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썸전 군대, 연애의 마침표일까

등장인물

신여성(21살)
처자: 남자친구가 군대간지 두 달됨
연애관: 서로 반씩 묶여있는 연애

꽃신(23살)
처자: 9개월 전 남자친구가 제대해 꽃신을 신었다.
3년째 연애중.
연애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고 싶은 말을 제때 하자.

군필오빠(25살)
처자: 전역한 군화, 군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와 일곱달째 연애중
연애관: 프리한 연애

군복을 입은 군인을 보고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의 아는 형, 오빠, 친구 또는 동생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저씨가 아니었다. 대학사회에서는 '군화와 고무신' (군대에 간 남자와 그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 볼 수 없고 연락도 쉽지 않으니 군화는 미안함이 커지고 고무신은 외로움이 커진다. 또 '남자는 제대하면 변한다더라', '끝까지 기다리는 여자는 1%밖에 안 된다더라' 같은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은 어찌나 그렇게 야속한지, 우리 젊은 시절의 연애에서 군대는 큰 시련임이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군화와 고무신은 스마트폰으로 손가락만 두드리면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대에서 서로의 편지 한 통이 간절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고무신은 때때로 군화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은 커다란 선물꾸러미를 소포로 보내고 소박한 행복에 젖는다. 군화들은 일과가 바쁘더라도, 선임들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고무신에게 전화를 한 통을 더 하려고 노력한다. 이미 그들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썸전'을 통해 그와 그녀들이 한자리에 만나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펼쳐본다.

입대 전에 많이 헤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안 헤어지고 잘 사귀고 있네?
신여성: 남친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달 동안은 계속 싸웠어. 서로가 불안해서인지 좋게 다니다가도 잘 다투게 되더라. 입대 일주일 전에도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었어.
군필오빠: 어! 나도 입대 하루 전에 헤어지자고 했다가 여친한테 맞았어.
꽃신: 나도 정말 많이 싸웠어.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헤어질까도 여러 번 생각했어.
신여성: 음 군대 한 번 보내 보니까, 서로 한 달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이 남자를 기다려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입대 하루 전이라도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는 막 입대해서 한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야. 이때 이별을 고한다는 건 예외도 아닐뿐더러 남자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을거야.
군필오빠: 아냐아냐. 훈련소까지는 괜찮아. 그땐 힘들어서 여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신여성: 맞아. 짐작이 없는 선에서! 바쁠 때 전화 오면 가끔 난감하기도 하나. 심지 어떨지도 너무 미안하지.
제대 후의 연애는 입대 전의 연애와 많이 다를까?
신여성: 그렇지 않을까. 나는 아직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일명 '고무신'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보통 남자는 아직 학생이고 여자는 사회인이라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남자친구가 북학하면 꽃핀 새내기들이랑 너무 친해지면 어찌하지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 군대를 기다리고 나서도 문제라니까?
군필오빠: 에이,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좀 힘들어지는 주위 사람들을 많이 봤어. 여자가 남자한테 짐작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반대로 남자가 벌써 사회인이 된 여자한테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기도 해. 물론 나는 그런 것 없이 잘 지내지 만.
신여성: 서로에게 짐작을 버리고 부담을 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문제일 것 같기도 해.
꽃신: 사실 나는 조금 달라. 제대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바로 일을 했고 돈이 부족하면 일명 '엄마카드'를 사용했거든. 남친과 내가 6:4로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어.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문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신여성: 사실 남자친구가 훈련소 있을 때 편지를 못써줬어. 자대에 가서야 편지를 써줬는데 미안하더라.
군필오빠: 자대가고 나서는 편지 자주 안 써도 괜찮아. 매일 전화할 수 있어서 편지에 쓸 얘기도 점점 떨어지고.
꽃신: 남자친구 부대가 온 좋게도 집 근처에서 마주 면회를 갔어. 그래도 보고 싶어서 나는 손편지도 많이 주고받았어. 전화도 많이 했고 남친이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다 전화비로 사용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지.
군필오빠: 여자친구한테 손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 요즘은 노트에 한 장, 한 장 일기 써서 보내주는 게 유행이더라.
신여성: 나도 노트에 일기 써서 보내준 적이 있어. 일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전하는 자주하는 것보다 가끔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통화비도 부담스럽고, 또 언제 전화 올지 몰라서 못 받을까 봐 불안하잖아. 이럴 땐 편지를 주고받는 게 좋더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지가 도착해서 뜯어볼 때 느껴지는 그 두근거림이란. 최고지.
꽃신: 나는 남자친구한테 일기 써서 있는 노트를 세 권정도 받았어. 입대 전에도 하루에 감사한 일 세 가지씩 적어 서로 보여준 적이 있던 했지만, 군대에서 일기형식으로 보내주니 남친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어서 애뜻함이 더 커지더라.
군필오빠: 요즘 연인들은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드물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연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아니면 편지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라 그만큼 편지가 간절하고 소중한. 이런 게 다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군대에 가기 전, 남자는 여자든 혼란스럽잖아. 여자는 애랑 헤어져야 하나 싶고, 남자는 먼저 정리하자고 해야 하나 고민이던데. 너희는 어땠어?
신여성: 나는 작년 6월부터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어. 그리고 올해 4월에 남친이 입대를 했지.. 남친이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군대를 기다리던 애랑 결혼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닌 가 싶더라. 만만치 오래된 사이면 또 모를까. 그래서 애를 기다려야 할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결국 300일 사근 남친을 600일 넘게 기다리게 되었지.
꽃신: 나 같은 경우는 250일 정도 만나고 남자친구가 입대를 했어. 처음 사귀기 때부터 남친이 언젠가 군대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막상 간다고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은연중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 그래서 텅텅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군필오빠: 난 직접 군대를 갔잖아? 2년간 기다려줘야 하는 건 여친 입장이나. 약간은 체념한 상태로 있었어. 여자친구가 기다려주면 기다려주는 거고, 헤어지자 하면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었지.

입대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네. 남자가 입대를 하고나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을까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잖아.
군필오빠: 난 그렇게 불안했던 것 같지 않아. 여자친구가 먼저 그런 불안함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거든. 내가 훈련소에 있을 때 한번은 여자친구가 클럽에 갔던 적이 있어. 훈련소와 전화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여자친구가 클럽을 갔다 왔다고 편지를 보냈더라. 순간 화가 날 뻔 했는데, 여자친구가 적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알려줬다는 게 고마웠어. 오히려 더 안심이 되고.
신여성: 나도 술 마시러 가거나, 클럽 갈 땐 남자친구한테 말해줘. 아무래도 말해주는 게 예의지. 그만큼 행동을 조심시켰다는 거니까. 내 남자친구도 솔직하게 말해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대학생 생활 하면 남자 선배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은 남자 쪽에서도 좀 이해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해.
군필오빠: 맞아. 그리고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은 남자가 전화를 최대한 자주 하고, 여자는 다른 남자와 만나게 되면 이유를 미리 말해 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꽃신: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오해가 생기고 서로가 민감해지더라. 전화로 밖에 이야기를 못하니 한계가 있어.
군필오빠: 그래도 전화를 자주 하는 게 좋아. 전화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그럼 제대 후에, 여자는 소위 꽃신을 신은 후에 입대 전 연애 때 보다 더 좋아진 점이 있는 거지?
꽃신: 무엇보다 매일 볼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본래 연애라는 것이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는 거잖아. 그런데 군대라는 벽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속했어. 또 남친이 확실히 제대 후에 어깨도 좀 더 넓어지고 남성미가 강해졌어. 참 좋았지!
군필오빠: 그런데 모든 남자가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신여성: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 군대를 기다려 준 여자친구를 보면 어때?
군필오빠: 여자친구가 더 좋은 여자라고 느껴져. 군대에서 여자친구가 해준 것들은 생각하면 늘 고맙기도 하고.
군화와 고무신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애뜻한 손 편지지. 군복무 중일 때 편지는 많이 주고받았어?

마지막으로 군인남친과의 연애에 대해 요령 좀 알려줘.
신여성: 욕심을 갖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애가 이렇게 해주겠지, 애가 몇 시에 전화해주겠지, 내 시험기간에는 나오지 않겠지 등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놔야 해.
군필오빠: 서로 너무 구속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
꽃신: 힘들더라도 최대한 자주 찾아가고 연락하는 방법만이 최선이 아닐까.



고민썸

군화와 고무신 혹은 그 시기를 거쳐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연애고민을 받아보았다. 이 중 두 개의 고민을 선정해 송창민 연애컨설턴트에게 조언을 구했다.

“군인 남자친구가 불안해합니다”

“제대하니까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연1)
제 남친은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났고요. 일말 상초라고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말 상초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남친은 제 사정은 생각 안하고 제가 바쁠 때 전화를 합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화를 내기까지 하고, 그러다보면 매번 싸우게 되요. 그리고 제 생활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아니냐며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의 빈자리가 그리고, 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많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남자친구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2)
제 여자친구는 제가 제대할 때 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면회도 자주 오고, 손편지도 자주 보내줬습니다. 저에게 고마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대하니까 여자친구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해준 일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문득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동안 기다려준 여자라는 부담감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여자 친구에 대한 불신은 '데도' 때문이 아니라 '상상'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남자 친구가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범한 일상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은 사회에 있을 때보다 더 소심해지기 쉽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하고, 망상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럴 때의 최선은 남자 친구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친구가 오해 할 경우, 요목조목 따지기보다 여유롭게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가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

전문가의 조언
저 역시 여자 친구가 제대할 때까지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편지, 면회, 전화 통화 등 그녀의 정성과 사랑으로 힘든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그녀. 하지만 제대하고 나서 저는 학생이었고, 그녀는 직장인이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황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도 식었고, 저는 이별을 보류하며 마음 없이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섞인 배려는 우리의 만남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별 할 핑계를 만들며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같은 만남은 그녀에 대한 배려도, 지난 사랑에 대한 고마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노유진 수습기자 by32108@hansung.ac.kr
임태미 수습기자 taem14@hansung.ac.kr
전희민 수습기자 Aegis16@hansung.ac.kr
일러스트 이예림

송창민
『연애의 신』 『연애 바이블』의 저자이자 연애 컨설턴트
다음카툰 '송창민의 이기적인 연애' 운영 중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lovestudy78